

제2089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글로벌 영토 확장 '고삐' 당기는 손태승 회장 8



박명철 넥스트BT 대표 "경남제약 인수 총력" 15

코스피 (5일) 2179.23 (-11.43P)
코스닥 747.95 (-0.12P)
환율 (달러당 원화) 1125.50 (+0.60원)
금리 (국고채 3년물) 1.836% (+0.002%p)



같은 서울, 다른 하늘

서울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숨이 막힐 정도로 검뿌었다. 왼쪽은 2018년 3월 5일 같은 곳에서 바라본 도심. 도대체 맑고 푸른 하늘은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연합뉴스

“최악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운영 강제 시행 필요”

조명래 장관 “재난 규정 입법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16면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차량 2부제 등에 대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이라는 반론이 많아 정부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정책과 방법들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공간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평균 150 $\mu\text{g}/\text{m}^3$ 을 보여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사령탑은 시도지사가 맡게 돼 있어 이들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며 “서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험과 의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의지나 법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재난에 준하는 여러 가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플라이강원
에어프리미아
에어로케이

신규 LCC 3개 하늘길 열렸다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리미아, 에어로케이가 5일 신규 항공사로 결정됐다.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 신규 항공사가 탄생한 것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들 3개 항공사가 2년 안에 모두 취항하면 국내 항공사는 12개로 늘어난다. 당초 1~2개가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꺼번에 3개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항공사의 무한 생존경쟁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항공운송 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신생 항공사 등 5곳으로부터 항공운

국토부, 2년 내 취항 조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저가 항공사 9개로 늘어 '무한경쟁' 돌입 불가피

송면허 신청서를 접수해 자체 태스크포스(TF)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면허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 3개 항공사는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에 취항 노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리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9개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구상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해 제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예고했다.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당한 상황에서, 현재 완전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점 등이 고려됐다.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금 이행 등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해 양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中, 올 성장목표 6~6.5%로 하향

전인대 개막... '무역전쟁' 여파 경기둔화, 부양책 꺼낼 듯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낮춰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6.5%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내수 침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침체된 상황여서 비장한 분위기 속에 전인대의 막이 올랐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초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개최되는 전인대는 정부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경제와 외교, 국방 등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법을 제정하고 개정, 국가 주요 지도부 선출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에

서 매우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로 꼽힌다.

리 총리는 전인대 위원 3000명 앞에서 100분간의 연설을 통해 지난해 정부 활동과 올해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였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했는데, 이는 28년 만의 최저 수준인 작년 경제성장률(6.6%)보다도 낮은 것이다.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도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지난해 2.6%보다 높여 잡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얼어붙은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채권 발행, 기업 감세를 통해 4조 위안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정 기자 0jung2@

“美中 무역협상 타결엔 韓 수출 年 26조 손실”

(연간 수출액 3.1% 해당)

日·대만 등 美 동맹국에 타격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이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바클레이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엄청난 규모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향후 5년간 매해 230억 달러(약 26조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의 약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WSJ는 중국이 2019~2024년 추가로 총 1조3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중 무역협상은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천연가스와 농산물, 자동차와 관련 부품 등을 미국으

미·중 무역협상 타결 따른 아시아 국가 연간 수출 손실액 (단위: 억 달러, 2019~2024년 기준)



로부터 수입하면서 그만큼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다.

바클레이스는 향후 5년간 일본은 수출이 연간 280억 달러(전체 수출의 3.0%), 대만은 200억 달러(3.2%)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의 수출 손실은 연간 260억 달러로 추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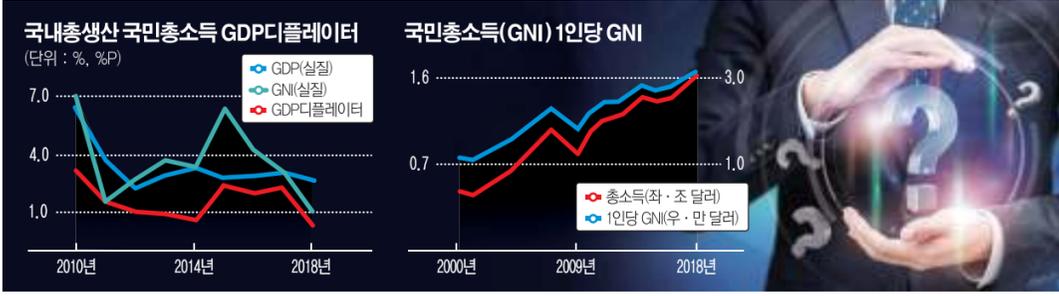
또 미·중 합의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중

국은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업체 셰니에르에너지로부터 180억 달러에 달하는 LNG 수입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계약 기간은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LNG 구매 계약은 10년 이상이다.

이는 그동안 LNG 부문에 거액의 투자를 해왔거나 투자할 예정이던 미국 동맹국인 호주와 캐나다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지난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300억 달러 규모의 LNG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대중국 LNG 수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호주는 최근 석탄 수요 부진을 만회하고자 LNG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만 WSJ는 이런 대규모 무역 흐름의 변화가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면 서도 미국이 의지해야 할 동맹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선 미·중 무역 합의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고용 부진·소득 양극화 심화...

빛바랜 국민소득 '3만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3만 달러 국가를 의미하는 3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3만 달러는 선진국 기준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고용 부진과 양극화가 확산하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쟁력 저하 등에 따라 성장률(GDP)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3050클럽국 평균 9.7년보다 늦었다 =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했다. 2006년(2만795달러)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1인당 GNI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짧은 기간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존 3050클럽에 가입한 6개국인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달성한 평균 기간은 9.7년이다. 이에 따라 12년은 다소 긴 기간이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5년으로 가장 짧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4년으로 우리보다 길었다.

한은은 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했다. 반면 전

문가들은 2만 달러 달성 이후 성장의 원동력이 빠르게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봤다.

실제 2006년(5.2%)만 해도 5%대를 기록하던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2.7%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도 2%대 후반으로 뚝 떨어졌다.

2만 달러 돌파 12년 만에 달성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국민 체감 어려운 게 현실 정부,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국민경제의 소비여력이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1.0% 성장)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빠른 속도로 3만 달러를 돌파했다면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느려지면서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의 힘이 조기에

약화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성장률 높이고 일자리 늘려야 =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선은 물가와 환율 안정을 통해 3만 달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과 신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자본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양극화에도 관련이 있다. 집값 대비 소득 등 상대적 크기가 크기 때문"이라며 "불공정거래나 약육강식, 지대 추구(rent-seeking)가 확산하면서 부족해진 사회적 자본을 상호 신뢰 개선과 함께 세금 체계 개편,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신협 정상화' 팔 걷은 김윤식 "연내 경영개선명령 탈피할 것"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BIS 등 경영시스템 평가 충족 당국 검사 통해 7월 MOU 졸업 區民에 국한된 조합원 가입 범위 타 상호금융사와 조건 동등해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5일 서울 소공동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협중앙회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이 연내 경영개선명령(MOU) 졸업을 반드시 이뤄내 신협 경영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신협이 금융사 이전에 협동조합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기능 역할 수행의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성과와 올해 경영 목표를 밝혔다. 김 회장은 "MOU를 탈피하려면 몇 가지 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올해 BIS 비율 5% 경영시스템 평가 3등급 등 조건을 충족했다"며 "현재 MOU 탈퇴 조건은 다 맞췄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5월쯤 금융당국에서 두 달간 검사받으면 이르면 7월 MOU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협이 MOU 졸업을 위해 이행한) 과제 가운데 조금 미흡하다(금융당국은) 추가 과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MOU 탈피가 안 되는 일은 생각하기 싫다"고 강조했다.

신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7년 금융당국과 MOU를 체결했다. 신협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신 경영 전반에 간섭을 받았다. 수협은 MOU 졸업 이후 지역본부 기능 확대를 통해 신협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회 이익을 출자배당 등 조합경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영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200억 원과 기업 대출 300억 원 등 500억

원을 조성해 신협의 설립 취지인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상호금융사 가운데 신협만 제한받고 있는 '금융영업권' 확대 필요성도 말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사는 영업단위가 전국 또는 시단 위이지만, 신협은 조합설립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특정 구에 있는 신협 지역조합은 해당 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식이다. 김 회장은 "신협의 국제적 규모보다 국내에서 폼파되는 것이 화가 난다"며 "다른 상호금융권과 조건을 똑같이 맞추려고 정부 당국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목표기금제 폐제화로 연간 1200억 원을 조합에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협은 예금자 보호 기금 명목으로 연간 1700억 원을 지출했지만, 7월부터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00억 원 줄어든 500억 원만 낼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는 "(절약비용은) 조합의 이익으로 잡혀 결국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외2, 법 시행령 제5조외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중국도 7곳뿐인데... 9곳으로 늘어 '치킨게임' 우려

현실 외면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국내 일곱번째 저비용항공사(LCC)를 희망했던 4개 후보 중 3개 업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에 대해 사업 허가를 내줬다. 이로써 국내 LCC는 기존 6개에서 무려 9개로 늘었다.

당초 1-2개 항공사가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다.

유럽 LCC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민심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남한)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중국의 LCC 개수도 7개에 불과하다.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2015년 이후 3년여 만이다. 하지만 국내 LCC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운임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됐으며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생존이 힘든 상황이 됐다. '무한경쟁 시대'라는 기대감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초과열 경쟁'이라는 우려감에 무게감이 더욱 실린다.

LCC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인프라 부족 등 악조건 속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항공사와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항공사의 대거 진입은 분명 경쟁을 '죽음의 게임' 수준까지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선의의

예상 뒤엎고 4곳 중 3곳에 허가 업계 "LCC 시장 이미 포화상태 유럽도 수익 악화로 파산 줄이어 지역 의식 출혈경쟁 내몰아" 비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인력유출이나 가격경쟁 등으로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강원도, 충청도를 거점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하는 항공사"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공항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지역별 표심 대결을 의식한 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LCC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게르마니아(Germania)는 유류비와 항공기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고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도 라트비아의 프리메라에어, 키프로스의 코발트에어, 독일의 아주르에어, 리투아니아의 스톨플래닛항공, 스위스의 스카이워크 등 LCC가 잇따라 파산했다.

유럽 최대 LCC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는 지난해 3분기 2000만 유로(약 25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현황 (단위: 억 원)

항공사명	설립일	노선	보유항공기	매출액	영업이익
제주항공	2005년 1월	67개(국제선 61개/국내선 6개)	40대	1조2594	1012
진에어	2008년 1월	35개(국제선 31개/국내선 4개)	26대	1조107	631
에어부산	2007년 8월	36개(국제선 29개/국내선 7개)	25대	6547	203
에어서울	2015년 4월	국제선 19개	7대	-	-
티웨이항공	2010년 8월	47개(국제선 43개/국내선 4개)	25대	7319	455
이스타항공	2007년 10월	33개(국제선 29개/국내선 4개)	20대	-	-
플라이강원	-	10개(국내선 3개 포함)	3대	-	-
신규 에어프레미아	-	5개	3대	-	-
신규 에어로케이항공	-	6개	3대	-	-

※ 신규: 2019년 예상 ※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8년 실적 ※ 출처: 각사



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다. 2014년 1분기 이후 첫 분기 적자다. 유럽 LCC들의 수익성 악화는 공급과잉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LCC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유럽 LCC들의 좌석 수는 1년 전에 비해 11% 늘어 항공권 가격을 끌어내렸다. 라이언

에어의 평균 항공권 가격은 작년보다 6% 떨어져 30유로(약 3만8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배럴당 30달러(약 3만4000원) 선이던 항공유 가격이 작년엔 86달러까지 치솟았던 것도 LCC들의 경영을 압박했다.

LCC의 한 관계자는 "경쟁을 치열하게 해 공급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도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LCC들은 항공권이 아니라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약 업계가 어려워지면 임직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텐데 향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3개 신규 항공사 사업계획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자본금	378억 원(강원도 135억, 투자자의향 1000억 확보)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투자자의향 1650억 확보)	480억 원
사업전략	양양공항 기반 외국인 강원도 관광 수요 확보	중장거리 프리미엄 이코노미 제공	초저가 운임, 경기남부·충청권 수요 확보
사업계획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	2022년까지 항공기 7대 도입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9개 노선 취항	2022년까지 항공기 6대 도입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

“자본잠식 50% 이상 지속되면 퇴출” 진입문턱 낮춘 대신 관리강화 방침

국토교통부가 5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신규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1-2곳에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깨고 재무능력과 사업계획 적정성이 부족한 2개사를 제외한 3곳에 면허를 발급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날 한꺼번에 3개 항공사에 면허를 발급함에 따라 당분간 항공시장에 추가 진입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이날 3개 항공사에 신규 면허를 발급한 것은 재무능력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보장되면 일단 모든 항공사의 진입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을 2017년 말 185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크게 늘렸고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키웠다. 강원도의 지원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수요 확보 전략도 마련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에 다수 투자처의 투자자의향(1650억 원)을 토대로 재무능력을 확보했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주효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을 2017년 말 15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크게 늘렸고 충청

권과 경기남부의 여행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재수, 플라이강원은 3수 끝에 신규 면허 발급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문호를 넓힌 대신 향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항증명(AOC)을 받을 때 1500여 개 항목의 안전운항 체계를 점검하고 시범비행 탑승점검 등을 하는데 이를 더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한다.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이 불충분할 경우 항공기 도입과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심사에서 탈락한 에어필립은 최대 주주가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과 필립에셋에 대한 차입금 상환의무(185억 원)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떨어졌다.

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 발급으로 건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이 촉진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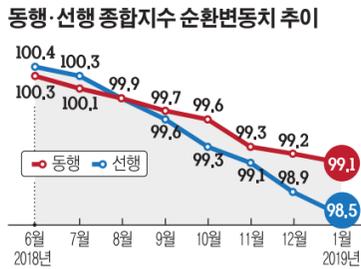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p>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p>	<p>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p>	<p>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p>
<p>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p>	<p>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p>	<p>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p>

생산·소비·설비투자 반등에도 고용은 여전히 '질벽'

1월 소산업생산 등 증가 전환
자동차·1차금속 3.5% 늘어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구인구직비율 4.1% 큰폭 하락
고용 부진에 경기 침체국면



부진을 거듭하던 산업활동 지표가 울 들 어 깜짝 반등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이다. 가장 큰 걸림 돌은 고용이다. 향후 산업활동 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되더라도 종합지수인 동행지 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당분간 개선 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는 모두 전월 대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동반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 후 3개월 만이다. 건설기성(시공실적)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흐름에도 동행·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각각 10개월 연속,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동행지수는 구성지표 중 광공업 생산지수(-0.9%),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0.1%)가 전월 대비 감소했 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는 수출입물가비율(0.6%)을 제외한 모든 구성지표가 내림세였다. 특히 구인구직비 율은 전월 대비 4.1%포인트(P) 하락했 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경기 지표 개 선의 발목을 잡았다.

1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농림어업 취업 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6만 명 감소했다. 제조업(-12만7000명),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10만3000명)의 어려움이 계속된 탓이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

질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취업자 증가 가 둔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저효과 외엔 고용시장에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서다.

산업 지표 개선도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 기엔 역부족이다. 1월 광공업생산은 자동 차(3.5%), 1차금속(3.5%) 등에서 늘었 지만, 짧은 주기로 증감이 반복돼 실질적 으로 경기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 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1.8%)과 정보통신업(2.5%) 등에서 늘었는데, 도·소매가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거래로 대체되는 추 세와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구성비가 3.4% 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두 산업의 생산 증가가 유발할 수 있는 취업자 증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는 재정 투입으로 이미 커질 만 큼 커졌고, 취업자가 증가한 다른 산업들 은 최근 경기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 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의 충격도 남아 있어 앞으로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재갑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

지방 기관들과 협조 체계 구축... 민노총 불법파업 엄정 조치



장 많이 받는 3개 업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와 나와 있는 상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마다 특수한 업종이 있고 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 했다. 이 장관은 "계속되는 고용한파에 대 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 를 숙였다. 이어 "전 부처가 협심해 투자 촉진 등에 나서고 있지만 고용정책은 전국 을 하나로 놓고 생각한다"며 "지역마다 일 자리 상황이 달라 지방에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고용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6일로 예정된 전국민노총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사업주들이 고소·고발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현장조사 결과를 내 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저 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 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층 면접(FGI) 형태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

이 장관은 최근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 제 단위기간 연장안에 대한 오남용 우려 제기와 관련해서 "11시간 휴식제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와 노사 합의 당시에는 예상 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하는 부분은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두 가지 사유는 모든 나라 가 예외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유 를 참고해서 하위 법령에 구체화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에 대 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해에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 다"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제로페이 편리하네요" 이해찬(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 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갑질 피해 가맹점주 구제 빨라진다

공정위,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의뢰

앞으로 갑질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갑질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 조정 여 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제출명령·동의의결(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 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 하는 제도)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전에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전에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 제도는 19일부터, 통지 절차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도입 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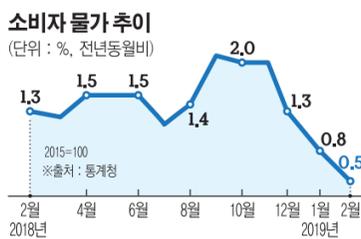
채소·석유류 가격 ↓ ... 소비자물가 2개월째 0%대 상승

통계청 '2월 물가 동향'

개인서비스는 큰 폭 오름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물가지수가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 2016년 8월(0.5%)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1.3%, 1.1% 올랐지만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신선식품지수는 5.2% 하락했다. 신선 식품 중 신선어개는 0.8%, 신선채소는 15.2% 내렸다. 농산물 중 채소류는 15.1% 급락했다. 공업제품도 0.8% 내렸는데, 석유류의 하락 폭(11.3%)이 컸다. 채소류는 겨울철 고온으로, 석유류는 유류

세 인하로 가격이 내렸다. 두 품목은 종합 물가지수 상승률을 각각 0.27%포인트(P), 0.51%P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서비스 물가지수는 1.4% 상승했는데, 개인서비스에서 2.5% 올랐다. 개인서비스의 종합물가지수 등락을 기여도는 0.81%P였다.

서비스 중에선 민감도가 큰 일부 품목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서비스 중에선 택시료(6.9%)와 요양시설이용료(5.9%) 등이, 개인서비스 중에선 공동주택관리비(6.4%), 구내식당식사비(3.3%), 가사도우미료(11.2%)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납세 구제 처리절차,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공개

심리자료 온라인 제출도 가능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납세 구제 처리절차를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각종 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

게 된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심판원은 이날부터 납세자 권리 구 제 강화를 위해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

까지 전 단계별로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 를 홈페이지(www.tt.go.kr)에 공개한다.

또 구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심리자료 제출을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 진술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맹견 목줄 없이 외출 땀 과태료 100만 원

세 차례 위반하면 600만 원

이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과 외출을 하면 세 차례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안 한 경우, 타

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8.2% 인상안(1조389억 원)을 확정 했다. 아울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 이 없어 자가 치료를 위해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 다고 규정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경협 둘러싼 韓美 시각차 우려... 북미 대화 불씨 살릴까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방미 결과 주목

대북 제재 틀 속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묘수 찾기 촉각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트럼프 정치 위기에 뒷전 밀릴 수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놓고 북미는 물론 한미 간에도 엇박자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사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한미 간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가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미특별대표와 미국 행정부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미국행은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첫 중재자 역할이다. 이번 이 본부장의 방미 관련 포인트는 세 가지다. 먼저 이 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미국 측 주요 인사를 만나 북미 관계의



불씨를 다시 살릴지의 여부다. 특히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제재 회회 방안으로 거론되는 안은 대금과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에스크로 방식(은행 등 제3자 예치)을 이용해 비핵화 조치 후 찾거나 식량과 생필품 구매에 한해 찾도록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3월 워싱턴 방문 성사 여부다. 애초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전제로 3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청문회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비핵화가 뒷전으

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거나 대통령 대북 특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5일 새벽 평양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빅딜'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제2차 조미수뇌 회담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문판에는 '2차 조미수뇌회담' 문구를 빼 회담 결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나타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AP 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의 비핵화 단계 평가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추진 입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과 상당한 입장 차가 있어 자칫 한미 간 불화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강래 “北, 개성~평양 고속도 설계도 보내 와”

“6월 실측, 北 제재와 무관”



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은 “동해선은 자료 확보가 덜 됐다”며 “저쪽도 관심이 있는 게 개성-평양선”이라고 밝혔다.

이강래(사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5일 남북도로 연결에 대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 설계”라며 “개성-평양은 지난주에 북한에서 고속도로 설계 안내도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1차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설계 안내도서를 놓고 분석해서 설계 지침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북한 실무자와 만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게 실측지도”라며 “올해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측을 할 텐데 올해는 기본 설계 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 제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 동해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착공식 전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16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9명에서 2017년 214명으로 딱 떨어졌는데, 지난해는 전년(2017년)보다 14명 증가했다”며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올해 목표는 198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0명 이하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유명희(오른쪽)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소주성으로 시장 죽이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 맹비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시장을 찾았다. 황 대표는 5일 남대문 새벽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잇따라 방문했다.

황 대표는 남대문 새벽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밀바닥 민심을 청취했다. 시장 방문은 체감경기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한선교 사무총장, 이현승 대표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황 대표 등은 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

졌다. 황 대표는 “세종대왕께서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가져와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시장 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가 살아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들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살린다면 거꾸로 시장을 죽이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오후에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을 찾아 역대 대통령의 묘역을 전부 참배한 데 이는 통합 행보 차원이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국회, 내일 임시회... 19~22일 대정부 질문

여야는 5일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실무협상을 하고 7일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개회식 후 1차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상위원회장과 예산결산위원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외통위위원장과 예결위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다. 이 기간 상임위원회도 가동한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열린다. 대정부 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 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개의한다. 김하늬 기자 honey@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유기농 녹차에서 얻은 카테킨을 함유한 메타그린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을 챙겨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保六·6%대 성장률 유지〉

중국 '바오류' 도 위태... 시진핑 책임론 커진다

경기둔화·부채폭탄·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 직면 '6% 성장률 사수' 위한 부양책·대미 협상책 고심

중국이 6%대 경제성장률인 '바오류(保六)'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부채 폭탄,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 온갖 악재로 인해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져온 막강한 권력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시 주석이 자신에 대한 커져가는 책임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에서도 부채 감축과 경기부양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시 주석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지나치게 내세워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경계심을 사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올해 양회를 통해 정책 실패 책임론을 잡

재우려 하고 있다. 첫 번째 카드는 마지막 선인 6%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기대책을 내놓았다. 무역 정책으로 위축된 기업 심리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다.

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정책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리커창 총리는 "온건한 금융정책은 완화와 긴축을 시의적절하게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금융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 중소·영세 기업에 자금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봉합하고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두를 전망이다. 리 총리는 이날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무역 논의를 계속 진전시

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올해 양회에서 미국을 설득할만한 당근을 제시할 전망이다. 전인대 마지막 날인 15일 외국 기업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외국인 투자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자본 100% 출자를 인정하며 금융업 등에서 문호를 더욱 넓히고 채권시장 개방을 가속화한다는 약속이 올해 양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새 무역협정 논의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일본과 만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4차 공식 협상을 벌였다. 캄보디아에서 이달 2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각료회의도 열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연내 RCEP 협상 타결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RCEP가 실현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무역액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印, 1조3000억 달러 잠재력” 글로벌 유통공룡 ‘격전지’로

아마존·월마트 이어 세븐일레븐 연내 ‘1호점’ 오픈

글로벌 유통업계가 앞다투어 인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세계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이 연내 인도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븐일레븐의 지주회사인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인도 최대 소매업체 퓨처그룹과 제휴해 올해 인도에 세븐일레븐 1호점을 오픈한다. 몸바이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퓨처그룹과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설립을 위한 프랜차이즈 합의에 서명했다. 퓨처그룹의 창업자인 키쇼어 비야니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븐일레븐 인도 1호 매장은 몸바이에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월마트에 이어 세븐일레븐까지 인도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유통업체의 전통적인 강자 월마트는 2007년 인도 바르티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플립카트를 160억 달러에 인수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도 퓨처그룹에 대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유통 공룡들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도는 인구가 13억5000만 명에 달하는데다 경제성장률도 높다. 또 인도 시장 대부분을 중소 영세 소매업체가 차지하고 있어 편의점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 소매시장 규모는 현재 750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5년간 1조3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아르빈드 상할 테크노파크 어드바이저 대표이사는 “세븐일레븐은 인도



인도 남성이 뉴델리의 한 식품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세계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올해 안에 인도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다. 뉴델리/AP뉴스

의 전형적인 소형 독립 매장인 '키리나'와 전혀 다르다"며 "키리나는 주로 건조 식품을 취급하는 반면 편의점은 생활용품부터 즉석 음식까지 있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고 편의점이 갖는 경쟁력을 강조했다.

인도 소매시장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견인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한다고 포브스는 평가했다. 젊은층이 키리나에서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는 상거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진출이 녹록하진 않다. 인도 정부가 엄격하게 외국 자본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 브랜드는 단독 자본으로 진출이 가능하지만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출자 비율을 51%로 제한한다. 인도에 진출한 월마트가 소매업보다 외자 규제가 다소 느슨한 도매 형태를 취한 이유다.

세븐일레븐은 이미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멕시코, 중국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도가 18번째 진출 국가가 된다.

김영정 기자 0jung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과 리커창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뜻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리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낮춰 제시하면서 심각한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리프트 상장’에 日 라쿠텐 몸값 ‘쑥’

2015년 리프트 지분 13% 확보 ‘선견지명’... 주가 6% 급등

미국 자동차공유서비스 업계 2위인 리프트의 상장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

리프트의 나스닥 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태평양 너머’에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프트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 달러(약 1124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계 1위 우버테크놀로지 앞에 나스닥 상장예 나섰.

WSJ가 지목한 ‘태평양 너머’는 다름 아닌 일본이다.

그중에도 일본의 전자상거래 2위 업체인 라쿠텐이 그 주인공이다. 라쿠텐은 일본에서 아마존과 대접점을 벌일 만큼 막강한 업체이지만 미국에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인 스테판 커리의 소속팀 골든스테이트워리어스 유니폼에 ‘라쿠텐’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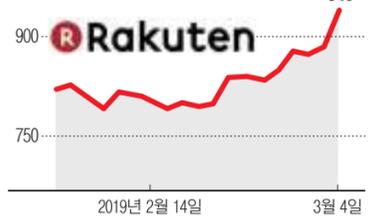
정도다.

라쿠텐은 2015년 당시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리프트 지분 13%를 확보했다. 현재 리프트의 기업가치는 200억~250억 달러(약 2조2300억~2조8000억 원), 라쿠텐이 가진 리프트 지분은 가치는 3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라쿠텐 시총의 30%에 맞먹는 액수다.

이 같은 계산이 나오면서 투자자들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라쿠텐 주가는 4일 6% 급등했다. WSJ는 라쿠텐의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현재 라쿠텐의 EV/EBITDA 배율이 8.7배로 지난 5년 평균인 11.4배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EV/EBITDA는 기업의 시장가치(EV)를 세전영업이익(EBITDA)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그러나 라쿠텐도 고민은 있다. 주가가 2015년을 정점으로 60% 떨어진 수준에

라쿠텐 주가 추이 (단위: 엔)



머물고 있어서다. 2016년에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 2017년 말에는 약 6000억 엔을 투자해 자체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WSJ는 분석했다. 시장은 오히려 리프트 상장의 최대 수혜자로 라쿠텐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덧붙였다. 또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 부문의 실적도 개선되면서 다소 부진한 전자상거래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김영정 기자 0jung2@

카를로스 곤, 100억 내고 3개월 만에 보석

청구 세번재 만에 풀려나... 가족들 “日 검찰 자백강요, 제소할 것”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사진)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도쿄지방법원이 곤 전 회장 측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석금은 10억 엔(약 100억603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단, 도쿄지방법원은 곤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일본 내 거주 제한, 해외 여행 금지 등 증거 인멸 및 도주를 막기 위한 조건을 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는 1월 특별배임죄로 추가 기소된 후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곤 전 회장 가족의 변호사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일 넘게 곤 전 회장을 구속하는 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곤 전 회장 측 변호사는 “구속 장기화에



따라 일본에서는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곤 전 회장의 즉각 석방과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곤 전 회장의 가족들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일본 사법 시스템을 비판했다. 성명은 “일본은 한겨울에 구속된 곤 전 회장에게 모포 두 장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주말까지 이어지는 조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촉구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회사 자금 유용에 따른 특별배임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곤 전 회장은 지난 1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육종 독점 인터뷰에서 “감옥에 갇힌 채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건 닛산의 책략”이라며 “닛산-르노 통합에 저항하는 일부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고자 책략을 펼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 적용)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시
주식거래수수료 10년 무료 + 순금 총 100돈!

*비대면 최초 위탁 신규, 유관기관제비용제외, ~3/31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글로벌 내실 다지는 우리銀... '이자장사' 오명 벗는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베트남, 인도 등 IB데스크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에도 IB부문 확장을 이어나간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은 특히 글로벌 부문에 '격지수당'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을 격려하도록 했다. 글로벌 전문가 손태승 회장이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글로벌 부문 '윈 팀 점프'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월 안으로 중동 IB데스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동 IB데스크는 국내은행 중 최초로, 우리은행은 바레인 지점과 두바이 지점을 후보로 두고 직원을 파견보내 검토 중이다. 두바이는 중동지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로 인도 IB데스크를 통해 서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연결해 글로벌 딜(Deal)을 커버할 수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 대한 국내 중·중견건설사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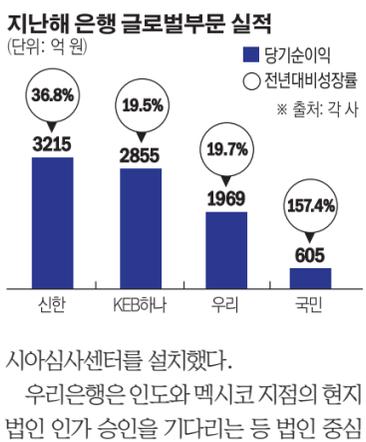
우리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도 상반기 중 IB데스크를 설치한다. 우리은행은 런던 IB데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브렉시트 영향으로 유럽 거점을 독일로 이전한 뒤 IB 일부 기능도 옮겨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2017년 하반기에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싱가포르 등 4개 지역에 이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베트남 호찌민과 인도 뭄바이에도 사무소를 추가했다. 10월에는 싱가포르에 아시아지역 여신심사를 전담하는 아

IB데스크 확대
중동 후보로 바레인·두바이 물망 국내 기업 수주활동 지원 시너지 상반기 獨프랑크푸르트 거점 확보

근무 환경 개선
미안마 등 비선호지역 수당 지급 직원 건강검진 횟수 2회로 늘려

글로벌 IB데스크 운영현황

지역	설치일	지역	설치일
시드니	2017.7	뉴욕	2017.7
싱가포르	2017.7	베트남	2018.8
런던	2017.7	인도	2018.1



으로 지점을 내며 현지화 영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에서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난 1969억 원(1억7560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리테일 영업과 IB영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현재 10%인 해외부문 순이익 비중을 3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IB부문 수익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 손 회장도 해외 부문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1월 26일 경영전략회의에서 해외 점포장들에게 "해외 격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역은 영업 환경이 열악해 비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인도, 미안마, 방글라데시 등이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격지 근무 직원에게 인센티브 형태의 '복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건강검진 횟수를 2회로 늘렸다.

하지만 26개국, 431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숫자에 비해 질적 성장은 어렵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 우리은행 글로벌 부문 실적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 신한, KEB하나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이슈로 자본 비율이 부족해 큰 규모의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며 "지주사로 전환하며 타당포인트를 맞은 만큼 올해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허인 국민은행장, 노조행사 참석 축사 "노사 대화 통해 간극 좁혀 모범 되는 상호관계 조성"



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허인 행장은 "이 대회가 대

허인(사진) KB국민은행장이 올 초 불거진 노사 간의 갈등을 상기하며 "긴 시간 대화를 통해 (노조와)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인 행장은 5일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KB국민은행지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국민은행지부의 대의원대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허 행장은 이보다 조금 늦은 10시 50분이 되어서 자리를 재웠다.

허 행장은 축사에서 "일련의 시간을 돌아볼 때 노사 간의 서로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간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국민은행지부 대의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도 국민은행을 많이 걱정하고 잘되기를 바라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허 행장은 "하지만 힘들기만 했던 시간은 아니었다"라며 "노와 사가 그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함께 앉아 대화하고 협의하며 노사 간 생각의 간극을 점점 좁혀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여기서 (임단협)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교훈 삼아 노사가 더욱 협력해 나간다면 생산적이고 타에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의원 여러분들과 노조, 은행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 베타한 KB, 그 행복한 여정을 향한 아름다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축사를 마친 허 행장은 박흥배 위원장과 가볍게 답례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다.

앞서 박흥배 국민은행지부 위원장도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내는 게 KB 발전의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노사는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며, 이것이 지속 가능한 KB를 만드는 길"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와 KB국민은행의 허인 은행장, 이계성 여신그룹 부행장, 강석근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조순욱 상무 등이 참석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화환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하나銀, 은행권 유일 '모범납세 기업' 선정 KEB하나은행은 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납세 기업으로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납세의 탑'인 '국세 6000억 원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7년에 6716억 원의 법인세를 내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으며 수상 대상 16개 기업 중 은행권에서는 유일하다. 시상식 후 이후승(왼쪽 네 번째) 경영기획그룹장이 한승희(왼쪽 세 번째) 국세청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의무화... 불안전판매 차단

내부통제·설계사 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 불안전판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보험공룡'으로 불리는 보험독립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먹튀·철새 오명을 받는 설계사 교육은 더 강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불안전판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GA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엄격해진다. 현재 보험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준법감시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GA는 과장, 부장이 맡는 경우가 수도적이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업무만 하는 조직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지원조직 직원들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의 임기는 최소 2년간 보장된다.

아울러 매년 1회 영업조직(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등 보고)→준법감시인(내

보험사-GA 소속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험사	전속	78.2	78.1	76.7	63.8
	교차	19.6	16	18.7	10.1
	전속	77.9	76.1	78.8	72.6
	교차	19.6	24.9	18	25.6
GA	56.1	70.8	57.2	58.6	

※출처: 금융위원회

부통제 실태 점검)→이사회(개선방안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 과정을 거친 자율 점검도 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대형 GA에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이 마련돼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GA들이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업 최전방에 있는 설계사의 '철새·먹튀'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우선 완

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된다. 2년 주기로 하던 보수교육(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을 더 공부해야 한다.

불안전 판매율이 1% 이상이고, 횡수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대상이다. △모집 관련 윤리 △법령 및 분쟁 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판매를 모두 하는 교차모집 설계사에 대한 교육 제도도 정비된다.

이들은 3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의무자인 보험사와 GA의 이수 여부는 금감원 'e-클린보험 시스템'에 공개되며 매년 4월 업데이트된다. 교육받지 않은 설계사의 자격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사가 제재를 받는다.

하 과장은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교육 이수율은 5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모집 채널 스스로 판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우리카드, 사회초년생 맞춤형 체크카드 출시

'카드의 정석 쿠키 체크'

우리카드는 5일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카드의 정석 쿠키 체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25세부터 35세까지 고객 체크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설계한 상품이다. 해외여행과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온라인쇼핑, 커피, 영화 관련 혜택을 담았다.

주요 혜택으로는 해외 가맹점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부담해야

했던 해외 이용수수료를 면제했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입장 서비스도 탑재했다. 이 밖에 쿠팡과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캐시백 혜택도 담았다. 스타벅스와 주요 편의점, 영화관 사용 시 캐시백 혜택도 추가됐다. OK캐시백과 CJ ONE 멤버십 카드 기능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체크카드 상품은 국내나 해외 혜택 중 한 가지에 집중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 둘 모두를 한 카드에 담아낸 상품은 보기 드물었다"며 "이번 상품은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농협카드, AI 기반 '부정거래 예방 시스템' 구축

NH농협카드는 5일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 기법이 적용된 사고예방시스템(FDS)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는 해당 시스템에 부정거래의 전문화·국제화 추세와 새 부정거래 유형 자동학습, 이상 카드거래 등을 반영했다. 회사 측은 사고 적중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딥러닝 기법이 적용된 FDS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FDS는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전체 거래내역 전반에 적용됐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부정거래 탐지능력을 높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정거래를 막을 예정이다.



사진제공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이번 FDS 구축을 통해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모니터링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며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신 사고 경향을 반영한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재계, 비주력 계열사 정리...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발등의 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주요 그룹 계열사 재편 현황



삼성그룹
- 삼성웰스토리과 호텔신라 합병 가능성 - 이재용 부회장 삼성SDS 지분 줄일 가능성
현대차그룹
- 현대오트모빌 상장 통해 정익선 수석부회장 지분 처분 전망 - 광고계열사인 이노션의 경우 비계열사 광고주 확대 통해 내부 거래 축소 시도
SK그룹
- SK디앤디 지분 매각 - SK인포섹을 SKT 자회사 편입, SK해운 매각
LG그룹
- 총수 일가 판토스 지분 전량 매각, 서브윈 경영권 매각 - 수처리 사업 정리 추진
GS그룹
- GS ITM 지분 매각, 엔씨타스 청산 - 승산 운할유 및 폴리프로필렌 운송사업 매각
한화그룹
- 한화S&C를 물적분할해 한화시스템과 합병 및 지분 매각 - 태경화석 청산

이달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 오너일가 지분 20% 안 넘어도 LG 등 논란 피하려 사전 정리

주요 그룹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계열사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아예 청산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당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처리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

거래법 전면개정안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LG다. LG그룹은 지난해 구광모 회장과 LG 총수일가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넘겼다. 재계 관계자는 "강화되는 '20% 룰'에 저촉되지 않지만 '꼼수' 논란을 우려해 사전 정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말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인 서브윈도 매각했다.

또 LG는 지난달 연료전자회사인 LG 퓨얼셀시스템을 청산한 데 이어, 수처리 관련 회사인 하이엔텍과 엘지히타치워터 솔루션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이엔텍과 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의 LG그룹 내부 매출 비중은 각각 50%와 80%다.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계열사 지원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SK그룹 역시 지주사 SK(주)가 최근 SK

해운 매각에 이어 SK인포섹을 SK텔레콤으로 넘기는 등 사업 재편에 적극적이다. SK 자회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는 SK해운, SK인포섹, SK입업, SK D&D 등이다. SK D&D는 최창원 SK디스크버리 부회장이 SK D&D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넘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SK입업 역시 SK인포섹과 같은 방식으로 지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GS그룹은 오너일가 지분율이 80%에 달하는 GS ITM을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했다. SI 계열사인 GS ITM은 내부거래 비중도 70%가 넘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거론돼 왔다. 또 GS 계열사 승산은 운할유와 폴리프로필렌(PP) 운송사업을 지난해 매각했다. 승산은 지분 전량이 오너일가 소유이며, 내부거래 비율이 높다. 이 밖에 한화그룹은 울초 김승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태경화석(화학제품 유통사)을 청산했다.

향후 삼성과 현대차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대호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의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용 부회장이 SI업체 삼성SDS 지분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는 현대오트모빌을 이달 말 상장할 예정이다. 정익선 수석부회장은 이 회사 지분 19.46%를 갖고 있는데, 규제 대상인 20%에 육박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 부회장은 상장 후 구주매출 방식으로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나온다. 또 이노션의 경우, 비계열사 광고주 확대를 통한 내부거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수는 702건으로 2007년(857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록 기자 syr@
변호선 기자 hsbun@
인경무 기자 noglasses@

조양호, 한진 핵심 계열사 빼고 임원직 내려놓는다

(한진그룹 회장)

한진·대한항공·한진칼 유지 KCGI와 주총 표대결 예상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한진칼, 그룹의 모태인 ㈜한진,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등 3개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임원직을 내려놓는다. 조 회장이 핵심 계열사 업무에 집중하며 그룹 재도약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한진그룹은 5일 조양호 회장의 겸직 계열사가 현재 9곳에서 3곳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현재 조 회장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등 7개사의 등기임원에 올라 있다. 한국공항, 갈호텔 네트워크 등 2개사의 비등기 임원도 맡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따라 조 회장이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이사회에서 중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계열사의 임원직은 연내 겸직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사실상 주

장하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이달 말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권과 같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대결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2월 21일 한진칼이 감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을 2019년도 정기 주주총회의 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손자병법 뺏치는 '현대차 vs 엘리엇'

원교근공 먼나라와 연합해 적 격퇴 현대차, 세계 곳곳 기업설명회 '우리 편' 기관투자자 결집 나서

차도살인 빌린 칼로 공격

엘리엇, 특수관계인 지분 공개

본격적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현대자동차가 엘리엇의 공격에 맞서 외국인 주주 결집에 나서고 있다. 엘리엇이 특수관계인의 우호 지분 등을 확보하며 '차도살인(借刀殺人·빌린 칼로 공격)'을 시도하자 현대차가 '원교근공(遠交近攻·먼나라와 연합해 눈앞의 적을 공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부터 해외에서 소규모 투자그룹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매도 및 매수'를 전제하지 않는 기업설명회 'NDR(No Deal Roadshow)'를 개최한다. 4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8일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5-8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같은 설명회를 연다. 현대차는 이번 해외 NDR를 통해 지난해 △경영실적 △주요 경영현안과 최근 발표한 △R&D 및 미래차 관련 기술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한다.

앞서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주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중장기 경영전략 및 중점 재무 전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될 당시 외국계 투자자와 주요 의안자문기관들이 잇따라 등을 돌렸던 만큼, 올해 재추진 과정에서 이들과 연합해 엘리엇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사회 집임을 시작으로 현대차의 경영권을 노리는 엘리엇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주요 펀드의 지분을 무기로 내세웠다. 엘리엇이 쥐 현대차 지분은 0.2%에 불과하지만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특수관계인 '포터 캐피탈' 측의 지분은 이보다 10배가 넘는 2.7%에 달한다. 이에 맞선 현대차는 해외 기관투자자의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엘리엇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안 무산 이후 현대차의 여러 시나리오를 앞세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개월 새 2600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과 대규모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 충분한 준비를 마친 만큼 이번에는 (엘리엇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항공업계 통 큰 공채 승무원만 1500여 명

올해 대규모 항공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승무원 대규모 공채 채용한다. 승무원 채용만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650명 이상의 객실승무원을 포함해 총 118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우선 5일 기내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을 시작했다. 채용 규모는 200명 이상이다.

에어서울도 5일 2019년 첫 신입 캐빈승무원 공채 채용을 시작했다.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 체력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입사하게 된다. 채용 규모는 미정이다. 지난해 485명을 채용한 티웨이항공은 10일까지 공채 채용을 진행한다. 객실승무원은 총 100여 명을 선발한다. 일반 전형 과정 외에도 수영 테스트와 3차 면접이 추가로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종 도입 등에 따라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28%가량 늘리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776명을 뽑을 계획이다. 객실승무원은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425명을 채용하며 정비직은 32% 증가한 14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700여 명을 올해 뽑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반기에 300명을 채용한다. 이스타항공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명 넘게 채용한 진에어는 미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LG전자 이번엔 아이스크림 째 혁신 LG전자가 음악, 영화, 기술 등을 망라하는 세계 최대 규모 페스티벌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이하 SXSW)'에 참가해 혁신적 제품들을 공개한다. LG전자가 SXSW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페스티벌은 8일부터 5일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열린다. 사진은 LG전자가 선보인 캡슐형 아이스크림 제조기 '스노화이트(snowwhite)'로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다. 소비자들은 소르베, 젤라토, 프로즌요거트 등 아이스크림 종류를 결정하는 베이스 캡슐, 맛과 향을 결정하는 플레이버(flavor) 캡슐 2가지를 조합해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독자적 냉각기술로 만들 수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1회 충전 386km 주행 쏘울 부스터 EV 판매



기아자동차는 3세대 쏘울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 쏘울 부스터 EV를 출시,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쏘울 부스터 EV의 1회 충전 최장 주행 거리는 386km이다. 판매 가격은 프레스티지 4630만 원, 노블레스 4830만 원이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풀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SCC w/S&G) 등 EV모델만의 첨단 사양을 모두 갖췄다. 노블레스 트림은 △고

속도로 주행 보조(HDA) △10.25인치 HD급 와이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후석 열선시트 등 프리미엄 사양이 기본화된 최첨단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쏘울 부스터 EV 모델은 사전계약을 시작한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총 3600여 대가 계약됐다. 트림별 비율로는 프레스티지 39%, 노블레스 61%로 최고의 상품성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아차 美 법인 이어 공장도 적자전환

조지아 공장 지난해 5억 손실 현지 판매량 1.7% 감소 영향

미국 판매 부진으로 기아자동차 현지 법인에 이어 공장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5일 기아차 감사보고서(연결)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해도 1836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던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KMMG)이 지난해에는 5억4000만 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KMA) 역시 2년 연속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MA는 2015년까지만 해도 18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16년 적자전환을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2017년 265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2325억 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린 결과다. 기아차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2.4% 증가한 228만594대를 팔았다. 지역별로 유럽은 3% 성장한 49만1797대, 중국은 2.8% 늘어난 37만2대를 기록했다. 그 외 아시아, 중동 등 지역 판매량도 5% 이상 늘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량이 1.7% 감소한 59만583대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판매량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적자를 낸 것이다. KMMG, KMA 두 곳의 지난해 매출 역시 전년보다 각각 21%, 2.2% 줄어든 5조6607억 원, 13조9013억 원을 기록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LG 이달 주총 이사진 대거 교체...구광모 체제 완성



LG그룹 주주총회 일정	
회사명 (주주총회일)	신규 이사 선임
LG (3월 26일)	하범중 LG 재경팀장 한중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LG전자 (3월 15일)	권영수 LG 대표이사 COO 부회장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LG디스플레이 (3월 15일)	권영수 LG 대표이사 COO 부회장 서동희 LG 디스플레이 CFO 전무 이창양 KAIST 경영대학 교수
LG상사 (3월 15일)	윤준성 LG상사 CEO 민병일 LG상사 CFO 이재원 LG 통신서비스팀장 양일수 이정회계법인 대표
LG하우시스 (3월 14일)	강인식 LG하우시스 CFO 강창범 LG 화학팀 팀장
LG화학 (3월 15일)	신학철 LG화학 CEO 부회장
LG이노텍 (3월 22일)	정철동 LG이노텍 CEO 정연채 LG 전자팀장 박상찬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LG생활건강 (3월 15일)	김홍기 LG생활건강 CFO 부사장 하범중 LG 재경팀장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훈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오른팔’ 권영수 부회장 전면이 구 회장 보좌하며 계열사 조율 사외이사에 회계전문가 영입 격식·관습 벗어나 ‘뉴LG’ 시동

LG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구 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의 경영 기틀을 완성한다. 작년 임원인사를 통해 그룹 경영의 틀을 잡았다면, 이번 주총에서는 구 회장 체제 구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LG 지주와 LG 계열사들은 이달 14일부터 LG하우시스를 시작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구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권영수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의 전자계열사 이사 선임이다. LG의 주력 계열사인 LG전자는 15일 주총서 권 부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신규 선임한다. LG전자와 함께 또 다른 주력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도 권 부회장을 신규 이사 명단에 올렸다. 그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경력도 갖고 있다.

이로써 LG는 권 부회장이 구 회장의 경영을 대표보좌하는 형태를 갖추게 됐다. 권 부회장이 직접 계열사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해 구 회장의 의중을 표현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만큼 권 부회장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LG는 작년 7월 LG유플러스에 있던 권 부회장을 그룹 COO로 앉힌 데 이어 작년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권 부회장 아래 10명의 팀장을 모두 교체했다. 권 부회장은 이들 10명의 팀장과 소통하며 구 회장과 LG 계열사 간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이번 주총에서 하범중 LG 재경팀장을 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하 팀장은 LG화학 재무관리팀장 상무와 LG 재경임원 전무를 거친 재무통이다. 그는 LG생활건강 사내이사에도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LG상사에는 이재원 LG 통신서비스팀장이, LG하우시스에는 강창범 LG 화학팀 팀장, LG이노텍에는 정연채 LG 전자팀장 등 권 부회장 아래 팀장들이 주요 계열사 이사에 신규 선임된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 급감한 LG하우시스는 재무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LG하우시스는 강인식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등재한다. 강 CFO는 LG화학

금융, 경리담당 출신으로 재무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사에 새롭게 오르는 강창범 LG 화학팀장도 LG 경영관리팀(화학), LG화학 전지 경영전략 담당 출신이다.

LG화학은 지난해 말 퇴임한 박진수 전 부회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박 부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할 예정이다. 신학철 신규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사로 신규 선임돼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LG화학은 처음으로 이사회와 경영의 분리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등 기업의 회계 업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회계 전문가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LG는 한중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한다. LG상사도 이달 15일 주총서 양일수 이정회계법인 대표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LG는 구본준 부회장이 LG, LG전자, LG화학 등의 등기이사 자리를 모두 내려놓으면서 완전한 세대교체를 이루게 됐다. 홀로서기가 시작된 구 회장은 올해 ‘뉴 LG’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격식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업 문화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미약품
*광고심의필: 2018-1455-004400

99세까지 건강하게-



소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 아 랑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28까지**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나인나인[®]

정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 건조감 완화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급

24h
하루 한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김준(왼쪽)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SK빌딩에서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마친 후 이정목(가운데) 노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SK이노, 30분 만에 초고속 임금협상

임금인상률, 물가 연동 실행 “노사 신뢰 바탕 경쟁력 강화”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상견례 자리에서 30분 만에 임금협상을 마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서울 종로구 SK빌딩에서 ‘1.5% 인상에 합의하는 2019년 임금협상’ 조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정목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달 18일 노사가 상견례 자리에서 30분 만에 잠정합의했고 지난달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 참여 조합원의 87.60%가 압도적으로 찬성,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이는 해를 넘겨 타결되거나 자체 합의에 실패해 노동위원회 등의 중재까지 받았던 과거 노사관계와 비교하면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은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임금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곧바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은 국내 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노사가 2017년 임단협 이후 지속해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선진 노사관계는 향후 SK이노베이션이 100년, 200년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주춧돌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목 노동조합위원장은 “올해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 하길 바란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 소통하면서 작은 부분까지 신뢰를 쌓아 더욱 견고하고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 높은 찬성률로 투표 통과 등이 가능했던 것은 SK이노베이션 노사가 2017년 9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을 국가가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기로 한 합의를 양측이 신뢰에 기반해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일한 1.9%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30분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에 대해 “투쟁”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소모적인 노사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기업 노사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모범을 원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대한민국 노사문화에 미래지향적인 ‘신(新)노사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스쿨뱅킹 신한카드 자동납부로 이것저것, 신경 쓸 이 사라졌다



※ 학교별 스쿨뱅킹 자동납부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내는 날, 교재비 내는 날, 현장학습비 내는 날...
일일이 학교 납입금 챙기느라 번거로우셨던 학부모님을 위해
신한카드가 스쿨뱅킹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쿨뱅킹 카드 자동납부란?

이제 전국 초중고 학교 납입금도 신용/체크카드로 자동납부하세요!
가족 누구라도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교직원 식별번호로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수납시작은 카드사에서 신청한 날 이후 차주 화요일부터 적용
※ 신한 법인카드, 특수 목적 카드, 충전식 카드, 선불식 카드, 기프트카드, 신한BC카드 제외

신청방법 ARS 1670-0909(공부공부) / 모바일 앱 / 홈페이지

신한카드로 스쿨뱅킹 신청하고 혜택받자!

- 신한카드로 자동납부 시 최대 1만 원 캐시백 /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등 경품 증정
 - 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 초청 (남윤곤 소장 초청, 전국 7개 도시 개최)
 - 참가 신청: 2019년 3월 4일 ~ 20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당첨 고객: 신한카드 스쿨뱅킹 자동납부 고객 대상 추첨 선정 (당첨 고객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shinhancard.com]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24%)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기준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 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 및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190225-Cpn-001호 (2019.02.25)

라돈 공포에... 매트리스 렌탈 시장 급성장

코웨이, 매트리스 렌탈 판매량 전년보다 15% 쉼
쿠쿠홈시스, 올해 초 홈쇼핑 매출액 100억 돌파
청호나이스·웅진렌탈 등 잇따라 사업 확대 나서

라돈, 미세먼지 공포 속에서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렌탈 품목인 생활가전보다는 시장이 작지만, 성장세만큼은 뚜렷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로 매트리스 관리에 관한 수요가 증가해 렌탈 업계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가 상담을 가장 많이 한 품목은 침대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79만2445건 중 침대에 관한 상담은 2만6698건에 달했다. 침대 관련 상담은 2017년에는 3251건 정도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매트리스 렌탈 실적이 두드러진 대표적 업체는 렌탈 업계 1위 코웨이이다. 지난해

코웨이의 매트리스 렌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4만6000대를 기록했다. 총 관리 계정은 전년 대비 23.2% 증가한 44만1000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렌탈 총계정 수 701만 개에서 약 6% 규모다. 매트리스 품목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1829억 원을 달성했다.

쿠쿠홈시스도 지난해 국내외 총 렌탈 계정이 누적 195만 개를 돌파했다. 국내 135만 개, 해외 60만 개의 렌탈 계정을 확보한 쿠쿠홈시스는 2016년에 이탈리아 침대 브랜드 '팔로모'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매트리스 렌탈과 관련해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던 쿠쿠홈시스는 올해 초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상품의 홈쇼핑 매출액이 1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웨이 직원이 매트리스 위생관리 '홈케어닥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웨이

2017년 매출액인 60억 원 대비 66.6% 성장한 규모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기존 높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이탈리아 브랜드의 매트리스를 다양한 가격대로 선보이고 있다"며 "올해 팔로모는 매트리스와 더불어 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 제품군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이고,

인테리어 소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제품군을 확장,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2016년 매트리스 렌탈 사업을 시작해 올해 1월 기준 3만6500여 개의 계정을 확보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전체 렌탈 계정이 140만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매트리스 렌탈 비율은 3%

가 안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 꾸준히 누적 계정이 증가하는 품목"이라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매트리스 전담 케어 조직인 PCC(Professional Care&Cleaning)를 운영해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PCC 인력은 500명 정도다.

웅진렌탈과 현대렌탈케어도 매트리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웅진렌탈은 올해 초 매트리스의 경도를 20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슬립 컨트롤 매트리스 2.0'을 출시했고, 현대렌탈케어 역시 올해 1월부터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현대렌탈케어는 매트리스 위생관리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인 '큐밍 닥터 홈케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큐밍 닥터는 매트리스 오염도를 진단해 미세먼지 오염 정도를 파악해 이에 맞는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트리스 위생관리 전문가를 말한다. 현대렌탈케어는 큐밍 닥터 운영 인력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이통사 ICT 기술로 미세먼지 실시간 경보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주의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수시로 변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사는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보다 세밀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미세먼지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이다.

KT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1시간 단위로 바뀌는 반면, KT의 에어 맵 코리아에선 분 단위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변화가 심한 날에는 1시간 내에도 분 단위 수치가 최대 87µg/m3 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미세먼지 '좋음'에서 '나쁨'까지 포함할 만큼 큰 폭이다.

KT는 전국적으로 2000여 개의 측정소를 설치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 등산로, 공원 등에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통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KT는 연내에 유동인구와 공공정보를 결합한 '안전 통학로, 보행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야쿠르트 카드 1만여 대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알려주는 '에브리에어'(everyair) 서비스를 운영 중이



KT는 미세먼지 파악 시스템인 '에어 맵 코리아 앱'(왼쪽), SK텔레콤은 미세먼지 지도 플랫폼인 '에브리에어'(오른쪽)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KT·SKT

KT '에어 맵 코리아'
전국 2000여 개 측정소 설치
분 단위로 기상정보 업데이트

SKT '에브리에어'
야쿠르트 카드 1만여 대 활용
숨쉬는 높이 공기질 데이터 제공

다. 에브리에어는 실내·외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지도 서비스다.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한국야쿠르트

트 카드 '코코'와 일반 이용자 대상의 워닉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에어비'(AirBee) 등을 통해 사람들이 숨쉬는 높이에서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에브리에어 이용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기 상태를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상태를 색깔로 나타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했다. 특정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등록해 확인할 수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야쿠르트 카드는 높이가 약 1m로 어린이들이 호흡하는 높이와 유사해 기관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유아기 자녀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김훈배(왼쪽 두 번째부터) KT 뉴미디어사업단 상무, 이필재 KT 마케팅부부장 부사장, 황윤하 7SIX9 아시아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K-Live에서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미국 대륙 간 홀로그램 시연 무대에 서 있다. 제이슨 데롤로(맨 왼쪽)와 제리 그린버그(맨 오른쪽) 7SIX9 회장은 홀로그램으로 참석했다. 사진제공 KT

영화 속 홀로그램 회의가 현실로

KT, 5G 활용 세계 첫 韓美 대륙간 홀로그램 시연
서울~LA 9500km 거리 연결... "이달 중 5G 상용화"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절친한 친구이자 유명 프로듀서인 제리 그린버그가 홀로그램 영상으로 상암동에 등장했다. LA에 거주 중인 그린버그는 홀로그램 형태로 한국과 미국 간 9500km 거리를 극복하고 생중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는 KT의 5G 네트워크를 이용했기에 가능했다.

KT는 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K-Live(라이브)에서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미국 대륙 간 홀로그램 시연을 했다. 이번 시연은 마이클잭슨 한정앨범 'The Greatest Dancer(더 그레이트리스트 댄서)'의 첫 번째 싱글 'LET'S SHUT UP & DANCE(렛츠 셋업 앤 댄스)' 발매 기념으로 마련됐다.

KT는 이날 상암동 K-라이브에 구축한 플로팅 홀로그램 시스템에 5G 모바일 핫스팟(MHS)을 연동해 한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간 약 9500km의 거리차를 홀로그램으로 지연 없이 선보였다. 플로팅 홀로그램 시스템은 홀로그래피에 의해 생성된 3차원 사진을 얇고 투명한 금속 물체(foil)에 투영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은 홀로그램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법이다.

이번 홀로그램 시연 주인공은 LA에 머물고 있는 제리 그린버그 7SIX9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친구이자 프로듀서로 이번 한정 앨범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이다.

KT는 제리 그린버그 회장이 K-라이브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게 KT 5G 네트워크에 텔레프레젠텐스 기술을 접목했다. 이번 홀로그램 텔레프레젠텐스 시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인터넷 국제망을 이용했다. 미국 LA에서 국제망을 통해 한국으로 전송된 홀로그램 데이터를 국내 신규 구축한 초고속 광대역의 5G망을 통해 상암 K-라이브 현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텔레프레젠텐스는 원거리를 뜻하는 'tele'와 참석이라는 'presence'의 합성어다. 실물 크기의 화면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홀로그램 텔레프레젠텐스는 텔레프레젠텐스 기술에 홀로그램 기술이 더해져 구현된 것이다.

홀로그램 텔레프레젠텐스 기술은 5G에서만 가능하다. 5G는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20Gbps의 전송속도와 지연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KT는 3월부터 본격적인 5G 상용화에 나선다. 김범근 기자 nova@

3·1운동 100주년 기념메달 신청하세요

금메달 2종 2000개 한정
15일까지 선착순 예약접수

(주)풍산화동양행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메달'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3·1운동 100주년 기념메달'의 예약접수는 선착순으로 받는다. 기념메달은 2종(31.1g, 15.55g)의 금메달로만 출시되며 각각 1000장으로 수량이 한정된다. '기념금메달' (금 99.9%, 31.1g, 직경

40mm, 소장용 프루프급, 1000장 한정)의 앞면은 탑골공원의 3·1운동 부조 가운데 기생 수백 명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만세운동을 벌였던 경남 진주의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중앙에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담았다.

'기념금메달 II' (금 99.9%, 15.55g(1/2온스), 직경 28mm, 소장용 프루프급)의 앞면은 탑골공원의 3·1운동 부조 가운데 3·1운동 당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장면과 낭독 장소인 탑골공원의 팔각정을 상단에 담았고, 중앙에는 만세를 부르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실루엣을 담았다.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홍보관에서 모델들이 '3·1 운동 100주년 기념 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예약접수는 15일까지 한국조폐공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전국 지점 및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공식판매권자인 풍산화동양행에서 하면 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먹거리에서 관광홍보대사까지

요즘 '캐통령'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대통령)

이디야커피 손잡고 '어피치 블러썸 라떼' 등 시즌 음료

지난달 스타벅스선 캐릭터 마그넷 증정

한국관광공, 관광홍보대사 임명도

일 인기...신규 방한수요 창출 기대

식품, 관광업계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와 만나 음료, MD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해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12월 카카오IX의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와의 콜라베이션 제품을 내놓는다고 5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로는 처음으로 카카오프렌즈와 콜라베이션을 통해 음료 제품을 출시하며, 올 한 해 동안

시즌 제품 및 MD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어피치 블러썸 라떼' (사진)와 '어피치 블러썸 티' 2종이다. '어피치 블러썸 라떼'는 지난해 3월 봄 시즌 제품으로 출시돼 큰 호응을 얻었던 빗꽃라떼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음료 위에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어피치'를 표현한 스페인산 마시멜로와 핑크빛 마카롱 가루를 더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이디야커피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카카오프렌즈 콜라베이션 MD 증정 이벤트를 함께 연다. 12일부터 26일까지 콜라베이션 제품 2종 6잔을 포함해 총 12잔의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과 '어피치'가 새겨진 유리병도 증정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디야커피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올 한 해 카카오프렌즈와 다양한 콜라베이션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도 지난달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이벤트를 열었다. 당시 이벤트 내용은 스타벅스 밸런타인 상품을 포함해 카카오페이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담긴 '스페셜 에디션 마그넷 세트' 2종 중 하나를 제공했다.

스타벅스 마케팅팀 최희정 팀장은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통해 스타벅스의 감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담아낸 최초의 디지털 굿즈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스타벅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커피와 연관된 상황과 감정들이 이모티콘을 통해 잘 표현됐고, 이후 이 캐릭터들을 실제로 소장할 수 있는 마그넷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IX 선물하기를 통해 선출시됐던 '선데이치즈볼'도 14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 내 스낵 전문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선데이치즈볼은 카카오IX 이모티콘 콘텐트를 통해 인기를 끈 캐릭터 라이언이 치즈볼을 좋아한다는 스토리에서 탄생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 매장에서는 오리지널, 허니버터, 믹스치즈, 칠리 등 4가지 맛의 캐주얼 스낵 4종, 치즈밤(크림 치즈 슈), 럭키 테일(크림 치즈볼), 치즈문(크림 치즈 케이크) 등 3가지 파인 스낵 등 스낵류 전 제품을 판매한다. 스낵은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봉지, 텀케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했다. 캐주얼 스낵 안에는 귀여운 라이언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 있으며, '치즈볼 라이언'의 시크릿 스토리 카툰이 뒷면에 인쇄되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카카오IX 관계자는 "상반기 새로운 구매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형태의 오프라인 스토어로 확장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의 인기는 일본 소비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9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어피치를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9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한국관광 특별 이벤트 'More Korea'를 개최하고, 올해 일본관광객 320만 명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일본 소비자 성향을 한국 관광홍보에 새롭게 활용할 것"이라며 "일본 신세대 세대의 새로운 방문 수요 창출을 위해 어피치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공방' 미국 출시 앞둔 '나보타' 앞날은?

ITC '균주 출처' 조사 착수
결론까지 16개월 이상 소요
대웅제약 예정대로 美 출시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나보타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벌어진 현지 소송에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메디톡스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대웅제약에 제기한 균주 출처 및 제조공정 도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대웅제약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1월 앨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독신 제조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ITC는 메디톡스의 제소에 대해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해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양측이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메디톡스의 관점은 다르다. 메디톡스는 "이번 조사 착수는 ITC에 배정된 변호사가 양측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 착수가 결정된 것만으로도 특수한 상

황에 해당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보타 개발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ITC의 판단까지는 보통 1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4월까지 나보타를 미국 시장에 정식 출시하는 당초 계획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메디톡스의 시민청원서를 최종 거부한 것을 방패로 삼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부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FDA가 답변했듯이 이번 소송도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ITC는 대웅제약에 의혹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ITC의 요구에 따라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나보타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대웅제약이 조사에 불응하면 미국 관세법에 따라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확률은 희박하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을 전환점으로 삼아 수년에 걸친 균주 출처 논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주장대로 무고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더 이상 명예훼손을 지속하지 말고 공개 토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꽃술에 '사랑을 담아'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신세계 백화점은 14일까지 본점 와인하우스에서 국산 식재료로 빚은 꽃술 '사랑을 담아(500ml)'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들꽃 풀과 물, 그리고 효모만을 이용해 빚은 이 상품은 화학 첨가물이 없어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이 특징이다. 또 과일, 블루치즈, 파마산 치즈 등과 함께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꽃 향기가 일품이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CJ오쇼핑, 샤넬 디자이너와 손잡았다

CJ오쇼핑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 손잡았다.

CJ오쇼핑은 유럽에 있는 '칼 라거펠트' 글로벌 본사와 계약을 맺고 '칼 라거펠트 파리스(KARLL-AGERFELDPARIS)' 브랜드를 국내 최초이자 단독으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단독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개발해 론칭하는 것은 처음이다.

CJ오쇼핑은 '칼 라거펠트 파리스' 브랜드 라이선스를 활용해 국내 고객에 맞는 옷을 별도로 확대 선보이고, 유럽 본사에서 만든 오리지널 '칼 라거펠트' 가방·신발·액세서리 등을 직수입해 방송과 CJmall에서 판매한다.

CJ오쇼핑은 2일 '칼 라거펠트'의 브랜드 론칭 방송을 진행했다. 턱시도재킷, 트윈드재킷, 트랜치코트, 캐시미어 니트, 실크 슬랙스 등 여성 의류와 킬링 가방, 스니커즈 등 잡화 상품을 선보였다.

칼 라거펠트는 20세기 후반 활동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 꼽힌다. 독일 출생인 그는 어려서부터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았고, 샤넬, 펜디, 클로에의 디자이너로 활약하며 명품 브랜드의 핵심 디자이너로 발돋웠다. 특히 샤넬의 대표 제품인 리틀 블랙 드레스, 킬링 백 등을 선보이며

'칼 라거펠트' 단독 론칭



사진제공 CJ오쇼핑

'샤넬제국을 건설한 디자이너'로 불린다. 1984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칼 라거펠트'를 출시했고 1996년에는 럭셔리 캐주얼 라인인 '칼 라거펠트 파리스'를 추가 론칭했다.

파울로 리기 칼 라거펠트 본사 CEO는 "CJ오쇼핑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에 칼 라거펠트 파리스 브랜드를 처음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한국의 소비자들과 칼 라거펠트 브랜드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은 '칼 라거펠트 파리스'를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명품 프리미엄 콘셉트로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론칭 첫해에는 TV홈쇼핑과 자사 인터넷몰인 CJmall 위주로 운영하지만 향후 3년 내 국내 온·오프라인 매장 등 채널 확장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주문금액 기준 300억 원이다.

최요한 CJ오쇼핑 스타일 사업부장은 "이번 '칼 라거펠트 파리스' 브랜드 론칭은 패션의 본고장인 유럽 지역의 전설적 디자이너와 손잡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3년 내 연 주문액 500억 원 규모의 대표 패션 브랜드로 성장시켜 프리미엄 패션 명가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신세계그룹,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의결권 행사 독려...주주가치 제고

신세계그룹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신세계그룹은 상장사 7개사(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널과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

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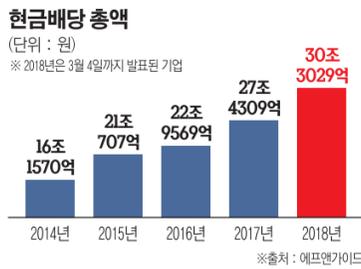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상장사 현금배당 30兆 돌파 '사상최대'

작년 전체 배당금보다 10% 많아
삼성전자 65% ↑ 9.6兆 '최고'



상장사들의 배당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디스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배당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일 기준까지 2018년 결산 현금 배당 결정을 공시

한 코스피·코스닥 884개사(약 70%)의 2018 사업연도 배당금은 30조3029억 원이다. 전체 70% 정도의 상장사 배당총액

만으로 이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셈이다. 전년도 전체 상장사 배당금 총액(27조 4309억 원)과 비교해도 10.47%나 증가한 수치다.

현금배당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다. 지난해 중간배당과 올해 결산 배당을 합치면 삼성전자의 총 배당 금액은 9조 6192억 원으로 전년(5조8263억 원)보다 65.1% 늘었다.

현대차가 배당 총액 1조662억 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SK하이닉스(1조 260억 원) △POSCO(8000억 원) △KB

금융(7597억 원) △신한지주(7530억 원) △SK텔레콤(7174억 원) △SK이노베이션(7083억 원) △하나금융지주(5705억 원) △KT&G(5051억 원) △삼성화재(4889억 원) 순이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4일까지 실적 발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코스피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17.8%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현금 배당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33% 증가했다.

순이익 증가는 2%에 불과했지만 배당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배당성향은 20%를

넘어섰다.

한편 배당 확대 분위기 속에서도 일각에서는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변화가 단발성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지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은 40%, 스튜어디스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50%로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주주환원은 한국이 선진국의 배당성향과 배당 수익률 수준을 따라잡을 때까지 지속돼야 할 장기 트렌드"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어닝시즌 끝났다” 커지는 1분기 실적 기대감

G2 협상·中 대규모 경기 부양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컨센서스 상향조정

4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무역협상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등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2114개 중 1835곳(86%)이 4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다.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시장 추정치)를 각각 0.29%, 3.16%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 역시 0.21%, 1.49% 추정치를 밑돌았다.

어닝시즌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실적 불안감 해소와 무역협상, 중국 경기 부양 등 국내 기업에 유리한 국면인 만큼 1분기 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이익수정비율(이익이 상향된 기업과 하향된 기업의 비율)은 지난달 -42.1%를 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 -34.4%로 회복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시즌이 종료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투자자들의 기대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했고, 이미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중국 소비와 연관이 높았던 화장품, 의류, 철강, 증권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삼성전자의 영

업이익 컨센서스 조정폭은 -34.02%에서 -3.05%로 완만해졌다. SK하이닉스 역시 -47.3%에서 -1.81%로 상향했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멈추면서 이익 둔화 현상도 멎었다”며 “또 하반기에는 반도체 이익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1분기 실적시즌에는 울초와 같은 수급장이 지속되기보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에도 남아있다. 홍준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에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수수료수익 15.4% 증가·선물사 수익도 70% 급증

증권사 작년 순이익 4.2兆 9.6%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증권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4조1736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료수익은 9조7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올랐으며 자기매매손익은 4조5287억 원으로 소폭(0.1%) 증가했다. 기타자산손익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조5668억 원을 기록했고 판매관리비는 6.1% 오른 8조3686억 원을 기록했다.

자산과 부채, 자본 등 재무구조에서도 규모가 늘었다. 증권사들의 지난해 자산총액과 자본은 전년 대비 각각 12.5%, 8.2% 증가한 439조 원, 5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부채도 382조4000억 원을 기록, 13.2%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RP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했지만 매도과

생결합증권이 증가하면서 부채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대폭 늘었다. 전년 대비 70% 증가한 233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8%로 3.1%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미·중 무역협상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비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점검 등 리스크요인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뚝’ 떨어진 남북경협株... 담는 外人

현대엘리 235억여치 순매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경협주가 동반 급락한 가운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의 틀 자체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최근 3거래일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246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전날에는 235억 원가량을 사들이며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외국인들은 현대엘리베이터 외에도 현대

건설(102억 원), 도화엔지니어링(41억 원), 일진석재(27억 원) 등 남북경협주 매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북한과 미국 간 대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주가 과도한 낙폭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보고 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북미 협상의 틀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석 달간 북미 정상회담 기대로 상승한 부분이 하락하고 나면 다시 경협주에 긍정적으로 접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상품별 부과→인별 소득 기준으로... '손익 통산' 펀드 부문에 먼저 도입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대대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펀드 부문에서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이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특위는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윤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부문의 과세체계는 ‘누더기 과세’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상품마다 제각각이다. 특히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특위는 이익에는 과세, 손실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의 골자 중 하나인 손익 통산이 펀드에 우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윤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금융상품인 데다, 단기적 직접투자보다는 장기적 간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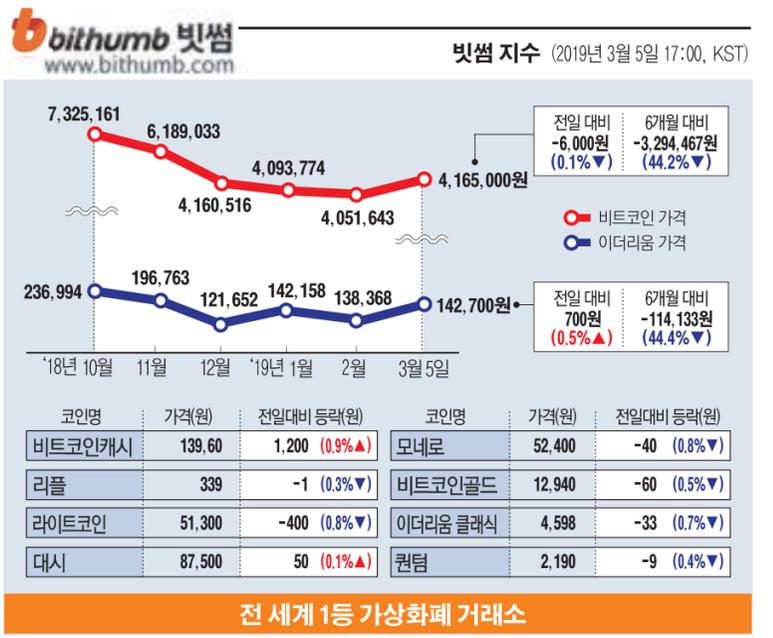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당장 협의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본시장특위가 펀드의 경우 개편안이 전면 도입 되기 전에 시급하게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특위는 펀드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잔여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장내 거래 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주식매매 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자본시장 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경남제약 인수 총력...조직적 방해 땀 법적 조치”

“고마워요, 방탄소년단”
SV인베스트 27배 차익

CEO 인터뷰

박영철 넥스트BT 대표

경남제약 이사진 선임 수포
인수전 다시 출발선상에
듀크코리아 이중매매 정황
형사 고소 법적 검토 마쳐



BT 대표는 5일 경남제약 인수 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남제약은 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을 공시

“바이오리더스, 넥스트BT는 경남제약을 정상화할 최적의 회사다. 자금력부터 인수 후 경영개선 계획까지 모두 준비됐다. 기존 인수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듀크코리아와 협의하고 있다.”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대표이자 넥스트

했다. 기존 안건은 바이오제네틱스, 라이브플렉스 관련 인사를 경남제약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내용이었다. 바이오제네틱스, 라이브플렉스 인사 선임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경남제약 인수전도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됐다.

박영철 대표는 “기존 인수계약과 무관한 바이오제네틱스, 라이브플렉스 인사가 선임되는 이사회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듀크코리아의 이중 매매 정황에 따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넥스트BT는 경남제약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최대 출자자 듀크코리아의 이중 매매 정황에 대해 형사 고소를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까지 마쳤다고 말한다. 아직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법적 공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넥스트BT는 경남제약 인수를 추진하며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최대 출자자인 듀크코리아의 지분 5300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는 불발됐다. 마일스톤KN펀드 조

합원 총회에서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 지위 확보에 실패한 탓이다.

동시에 마일스톤KN펀드가 다른 인수주체인 바이오제네틱스, 라이브플렉스와 매각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체와 경남제약 이사회 장악을 두고 불이 붙었다. 그러나 임시주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칼자루를 쥔 거래소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가 권고한 경남제약 경영혁신위원회에 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며 “상장폐지에 놓인 경남제약을 인수해 정상적인 거래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해 △비정상적 체제 개편 △투자자와 연관된 인사들의 경영 배제 △감사실 설치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경남제약은 최대주주 변경 시 거래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제출했지만, 잡음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정희 기자 ljh@

이거는 Money10 3월 5일 오전 10시 5분에 게재됐습니다.

2006년 설립된 이후 성장세를 타고 있는 SV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2.5배 이상의 영업이익 증대를 시현했다. 방탄소년단(BTS)을 배출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초기 투자했던 것이 큰 결실로 돌아왔다.

5일 SV인베스트는 지난해 4~12월 연결 기준 254억 원의 영업수익(매출)과 7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매출 103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대비 각각 2.5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배경에는 BTS를 키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자리한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SV인베스트는 2011년 4월부터 ‘KIF-SV IT전문투자조합’ 등 여러 펀드를 통해 빅히트엔터에 총 40억 원을 투자했다. BTS가 데뷔한 이후 본격적인 엑시트를 진행해 지난해 5월까지 전량 매도하면서 약 1100억 원을 회수했다. 투자 원금 대비 27.5배에 달하는 수익이다. 2650%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빅히트엔터 외에 카페24, 바이오솔루션, 천보, 엔지스텍, 넷리지 등에서도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자녀에 경영세습 안 한다더니... 지분 증여한 KSS해운 창업주

“외부서 지분만 받아” 해명

KSS해운 주가 추이
(단위: 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KSS해운 창업주가 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SS해운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박종규 고문은 친인척 박재홍에게 30만 주(1.29%)를 증여했다.

박 고문은 지난달 25일에도 친인척 박지홍과 박철홍에게 각각 30만 주(1.29%)를 증여했다. 박지홍은 1966년생이며 박재홍과 박철홍은 미국 국적자로 생년월일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증여로 박 고문의 지분은 21.5%에서 17.63%로 줄었다.

이들은 박 고문의 세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박 고문의 세 아들이 회사 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에서 지분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고문의 아들 중 두 명은 미국에서 각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한 명은 국내에서 해운과 관련 없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박 고문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2003년 회장직에서도 물러났으며 현재 KSS해운은 이대성 사장이 경영하고 있다.

KSS해운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박 고문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지분 보유량을 늘려왔다. 현재 박 고문과 바른경제동인회(1.73%), KSS해운사내근로복지기금(6.80%) 등 특수관계인이 30.69%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11.9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등극했다.

지난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KSS해운은 “안정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1935년생으로 올해 만 84세의 고령이다. 이에 지분 구조 정리를 위한 증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는 증여 목적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KSS해운은 액화가스 및 석유화학제품 해상운송 업체로 1969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 2025억 원, 영업이익 47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와이제이엠게임즈, 전자담배 업체에 진동모터 공급

와이제이엠게임즈가 글로벌 1위 전자담배 업체에 진동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제이엠게임즈진동모터사업부문의 주력 제품은 코인 타입 진동모터(Coin Vibration Motor)로 주로 스마트폰 부품 산업에 속한다. 주요 전방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최근 전자담배 기기 분야 진출에 성공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5일 “특정 업체 납품 사실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자담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의 진동모터를 생산·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와이제이엠게임즈는 글로벌 1위 전자담배 업체에 진동모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중인 진동모터는 해당 기업의 주요 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와이제이엠게임즈의 진동모터사업부는 전신인 영백씨엠 때부터 진행해왔던 현금 창출원(캐시카우)이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IT 기기용으로 와이제이엠게임즈의 진동모터를 사용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이거는 Money10 3월 5일 오전 10시 6분에 게재됐습니다.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안타. 티레이더 인공지능 트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쉽타 허허허 다 내일 편

선생님 투자는 어떻게?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8-01051호(2018.03.06 ~2019.03.05)

사장 전격로... HUG '이상한 채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위 거치지 않고 단독 결정 국토부 "인사 규정 개정하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용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사장 전격로 직원을 뽑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HUG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 HUG의 채용 과정 일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사안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절이다.

국토부는 작년 3월에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용방법 및 규모, 채용원칙,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HUG가 2017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7회에 걸쳐 25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사장 결재만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적게는 5명(2018년 무기계약직 채용 기본계획)부터 많게는 111명(2018년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계획)의 채용 계획을 사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다.

인사위는 채용 과정에서 혹시 모를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전형을 차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최근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받은 명성에 흠집이 난 것이다.

HUG는 최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최우수기관 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국토부는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직

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 등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 채용 인사위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전달했다.

이와 관련, HUG 측은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사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2017년 이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사위를 통하고 돼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채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사위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고 앞으로 채용수립 단계도 인사위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5일, 세종 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현장도 미세먼지와 전쟁

비상저감조치에 공사기간 늘어나 건물 내 불박이 공기청정기 개발도

사상 유례없는 미세먼지가 몰려오면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내려졌다. 하지만 향후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ں 예보가 나오며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일 지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당장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공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시간 조정 또는 단축이 시행된다. 건설사들은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과 함께 공사장에서 는 가동률 하향 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공정의 단축 운영을 해야 한다.

앞서 1월에는 환경부 주도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실내작업 위주로 우선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근로 상황이 예상되지만 작업자에게는 마스크를 배포하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현장뿐만 아니라 시공물에도 향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체 연구소 등을 통해 속속 개발하고 있다.

GS건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기할 필요가 없는 불박이 형태의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을 개발, 건축물에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단지 내·외부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개발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강남권 주택, 매입한 사람도 '강남 3구 주민'

강남·서초·송파 '끼리끼리'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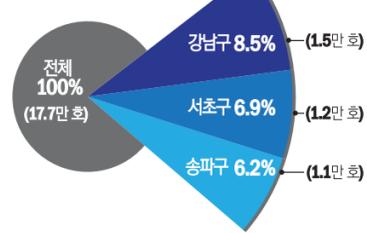
2017년부터 시작된 서울 집값 상승기에 매매가 이뤄진 강남권 주택들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강남 3구 거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17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소유자 변동은 2017년 35만5000호, 2018년(11월 누적 기준) 30만8000호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유자가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36만2000호(54.5%), 타 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17만7000호(26.8%),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12만4000호(18.7%)로 분석됐다. 전체 소유권 변동 중 동일 자치구 비중은

서울 내 다른 구(區) 거주민으로 소유자 변동된 주택 현황

(2017~2018년 11월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KB경영연구소



2017년 56.7%에서 2018년(11월 기준) 52.1%로 감소함에 따라 투자 목적에 따른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민의 다른 구 '마실'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서 다른 구 거주민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주택 중 강남 3구에서 산 비중은 21.7%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1만5000호(8.5%), 서초구가 1만2000호(6.9%), 송파구가 1만1000호(6.2%)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다른 자치구 주택 매입도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타지 거주자로 소유권이 변동된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2만 호)였다. 이어 강남구가 1만8000호로 많았고, 용산구(1만1000호)와 영등포구(1만 호) 순으로 이어졌다.

강남과 송파는 주로 인근 자치구 거주자로 소유권이 변경되며 '끼리끼리' 매수 움직임이 있었다. 강남의 경우 다른 구 거주자 소유권 변동 중 서초와 송파의 비중이 43.2%, 송파구의 경우 강남·서초·강동의 비중이 45.3%를 차지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내 "노후주택 삽니다" 4000가구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도심 내 노후주택 4000가구를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한 뒤 해당 주택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사용 승인 기준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근린생활시설과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대지도 매입한다.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수시 접수하며, 방문·우편 외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뜰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BMW '차량 화재' 민사재판 재개

8일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열려 이달에만 재판 10여 건 잇따라 '냉각수 보일링' 놓고 공방 예고

잇단 차량 화재로 물의를 빚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8일 재판을 시작으로 BMW코리아의 손

배소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민사72단독과 민사 22부에서 또 다른 차주들의 손배소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신원 등 복수 로펌에서 각각 대리하는 소송 중 3월에 진행되는 사건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BMW코리아 측은 각 재판부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 양측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이미 예정된 기일을 미루거나, 첫 재판 이후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단됐던 재판

이 이달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화재 책임과 결합 은폐 여부에 대한 BMW코리아 측과 차주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설계 결함에 따른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BMW코리아의 결합 은폐 및 축소, 누장 리콜 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은 이 결과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보인다.

다만 BMW코리아 측이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2개월여가 지나도록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 재판 진행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윤한슬 기자 charmy@



한유총, 고발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가운데)와 회원들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을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 서고 있다. 연합뉴스

'MB 보석' 오늘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78)의 보석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보석허가 여부를 고지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건강 상태 악화도 함께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돌연사 가능성도 크게 본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심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외부 의료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한슬 기자 charmy@

서울시, 非강남권 학교에 4년간 1220억 투입 비행장 갖춘 '드론고교' 생긴다

지역별 교육불균형 해소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서울시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일환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非)강남권 학교를 집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373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1220억 원을 비강남권 학교에 집중 투입해 교육 인프라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5일 △고교-대학 연계 교육강화 △사회 저명인사, 전문가 111명 '명예교사단' △미래 교육환경 조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내용이 담긴 '2019 비강남권 학교 집중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비강남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드론·증강현실

(AR)·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교육이 이뤄질 드론교육 시설 4개교, 정보기술(IT) 기반형 미래형교실 30개교, 예술활동 특별교실 27개교 등을 조성한다.

이에 11월 노원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는 직접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실외 비행장(운동장 1만3946㎡)과 연습장(잔디공간 6684㎡), 교육장 등을 갖춘 드론교육원이 문을 연다. 금천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관악구 서울산업정보학교,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도 각 1억 원이 투입돼 '드론과학실'을 6월 조성한다. 드론 관련 시뮬레이션 실습, 드론 제작, 드론 비행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미래형교실(4년간 120개교), 예술활동 특별교실(4년간 108개교) 등을 설치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다단계·가상통화 피해 구제" 대검, 서민범죄 대응 TF 꾸려

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까지 책임

검찰이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범죄 등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해 전문연구원,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TF는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비자 유사수신 신고·상당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범죄

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4591명에 달한다.

이 같은 범죄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피해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는 피해 발생 초기부터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한다.

더불어 범죄 유형별로 운영 중인 범정부협의회 소속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회복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형사정책적 쟁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사회 이슈 파악은 기본… 자신감 있게 면접 임해야”

막 오른 상반기 은행 공채…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꿀팁’

상반기 은행권 채용의 문이 활짝 열렸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총 560명 규모의 채용을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은행들은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2019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예정 인원은 220명으로 1년 전보다 50명 더 뽑기로 했다. 일부 지역과 업종에 할당제를 적용한다. 지역할당을 통해 85명(38%)을 뽑는다, 이렇게 입사한 행원들은 이후 5년간 그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 분야 인재로 25명(11%)을 할당했다.

서류전형은 없었다. 기존 우수 인턴에게 서류전형 면접 기회를 줬던 것은 필기시험

진행한다. 은행 점포에서 지원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IT직은 IT 관련 주제를 주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최종 합격자들은 이후 연수와 수습 기간을 거친다. 단, 그동안 불량하거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은행권 인사 담당자들은 필기시험에서는 상식을, 면접 전형에서는 자신감과 성실함을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는 “은행원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서비스 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며 “전문지식도 그렇지만 평소 사회 이슈에 관심을 두는



기업은행 전국서 채용설명… 220명 중 85명 ‘지역할당’ 선발 농협은행 채용 규모 340명… IT직종은 관련 주제로 PT면접 “금융은 서비스업… 고객·동료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해심 필요”

가점으로 대신한다. 필기시험은 4월 20일이다.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등 두 과목에서 총 100문항을 출제한다. 기은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학교들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서류접수를 마쳤다. 올 상반기 채용 규모는 340명이다. 7급도 20명 채용한다. 17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적성 평가(325문항 45분), 직무능력평가(50문항 60분), 직무상식(20문항 20분) 등으로 총 125분간 진행된다. 그중 직무상식의 경우 일반직은 금융경제상식을, 정보기술(IT)직은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SW공학 △데이터 통신 등을 평가한다.

면접은 5~6명을 한 조로 묶어 진행한다. ‘다대다’ 면접이다. 롤플레이팅 면접도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접 전형에서는 패기, 자신감,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사 인사 담당자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라며 “고객의 입장과 동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다운 패기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면접 전에 거울을 보거나 카메라로 녹화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알차도 달달 외워서 매력 없다”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얘기를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가성비甲’ banker 선배님, 다시 모십니다

시중은행이 떠난 선배들을 다시 모시고 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기업영업추진 50~60대 전문역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전문역은 기업영업이나 영업점장 근무 경험이 있는 1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점장 퇴직자 중 한 가지 요건을 보유하면 된다. 학벌과 성별, 나이 제한 없이 대구은행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전문역들은 수도권 지역과 부산·울산·경남지역, 대전·세종 등에서 개인 또는 팀(2인 1조)으로 꾸려져 개별 기업을 방문해 대출(PF 포함)과 수신, 신용카드와 수익증권, 퇴직연금 등 기업 아웃바운드 영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최초 1년 계약이 되고 6개월씩 단위 재계약을 한다.

기업영업이나 영업점장을 3년 이상

50~60대 금융 퇴직자 재채용
신입보다 저비용 고효율 장점
준법감시·내부통제 업무 담당
중년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경험한 5060 신중년 세대에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업권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현업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중소기업에 금융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윈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추가 채용 및 확대를 통해 전국구 은행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도 퇴직자를 재채용해 주로 ‘내부통제’ 업무에 활용한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에 업무가 익숙한 퇴직자들을 활용하려는 목적에서다. 또한 신입 행원에 대한 교육 비용 등을 고려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에 1년 후 재취업 조건을 달아 퇴직자의 재채용문을 열어 놓았다. 주로 2개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금융거래 적정성 등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시간이 요구하지 않아 시간제로 채용된다.

신한은행은 기업금융 전담역(RM) 출신의 퇴직자 40여 명을 채용해 리스크 관리 요원으로 활용했다. 이 밖에도 일본 주재 신한은행의 전임감사로 재취업되기도 한다.

KEB하나은행은 퇴직자 대상으로 심사역, 감리역, 영업점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재채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전담 시간제 계약직을 운영 중이다. 준법감시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계약은 최대 2년(1+1)까지 가능하다.

곽진산 기자 jinsan@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코인원, 코스모스 '아톰' 코인 이달 지각 상장... 이유는?

2년 전 마감시간 놓쳐 펀딩참여 불발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국내 거래량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코스모스(Cosmos) 프로젝트의 '아톰(Atom)' 코인을 3월 중에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모스는 가상화폐공개(ICO) 당시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요. ICO 부터 상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죠.

코스모스 주요 현황	
주요 개발자	재 권(Jae Kwon)
주요 기술	텐더민트 합의 프로토콜
총발행량	2000만 아톰(ATOM)
ICO 발행량	1500만 아톰
ICO 목표금액	1000만 달러 목표 달성 완료
네트워크	100개에서 시작해 매년 13% 늘어
참여자 수	10년 뒤 최종 300개로 확장
상장 거래소	코인원 3월 중 상장 예정

◇코스모스, 이오스와 다른 점은 '상생' = 코스모스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상화폐)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코스모스뿐 아니라 '폴카닷'이나 '하이콘'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코스모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텐더민트(Tendermint)'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채굴자를 위임한다는 점에선 이오스(EOS)와 비슷하죠. 코스모스 백서에 따르면 이오스의 21개 네트워크 참여자(BP)보다 많은 100개가 기본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참여자를 늘려 최종적으로 300개 수준이 된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이오스와 같은 위임 방식이지만, 참여자가 좀더 많은 수준이에요. 코스모스가 이오스와 다른 점은 이오스는 출범 당시 '이더리움 킬러'를 자칭했지만, 코스모스는 다른 가상화폐와의 조화와 협력을 우선시합니다.

코인 간 이동을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싶을 때 코스모스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는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카이버사의 랩비트코인(WBTC)과 비슷하네요. 기존 네트워크에서 동결한 만큼, 전송할 네트워크에서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아톰코인은 이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관리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투표권의 역할을 하죠.

◇코인원 상장에 2년이 걸린 이유는 = 아톰코인은 당시만 해도 불과 몇 분 만에 ICO가 끝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인기가 높은 만큼 참여자가 몰리면서 국내 많

아톰, ICO 28분만에 목표액 달성 30분간 테스트 시간 갖던 코인원 투자자 위탁 ICO 손 못쓰고 끝내 우여곡절 끝 2년 만에 상장했지만 "서로 다른 가상화폐 하나로 연결" 코스모스 '원대한 꿈' 실현은 글썽

은 투자자가 ICO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코인원의 어이없는 실수가 한몫했죠.

코인원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위탁 ICO를 서비스하겠다고 했었어요.

보통 거래소에 보관된 지갑으로 ICO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지갑으로 옮겨 놓고 ICO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코인원은 고객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투자금액을 정하면 ICO를 대신해 참여하는 서비스를 내놨었죠. 번거로운 작업을 대신하는 서비스라 많은 투자자가 코인원을 통해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막상 펀딩이 코인원의 예상을 벗어나 너무 빠르게 마감된 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코스모스 재단은 총 1000만 달러(당시 약 113억 원) 모집을 목표로 2017년 4월 6일 오후 10시부터 펀딩을 시작해 28분 만에 168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코인원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30분 뒤인 10시 30분에 펀딩이 시작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코인원은 약 30분의 테스트 시간을 갖고 펀딩

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간 동안 ICO가 마감된 것이죠. 펀딩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부랴부랴 시작을 했지만, 일부 투자자만 코인원을 통해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톰 코인이 나오기 전까지 코인의 권리를 미리 사고파는 '프리토콘' 상장을 준비했는데요.

실물이 없는 무언가의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단 측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라 메인넷이 나온 이후로 상장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원대한 꿈은 이뤄질까 =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전송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에게 검증된 텐더민트라는 기술로 주목받는데요. 모든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블록체인의 블록체인'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원대한 프로젝트인지 알 수 있어요.

꿈이 원대한 만큼 구현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카이버사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른 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코스모스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겠죠. 게다가 네트워크 참여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큼 많지 않다는 점도 약점이에요. 블록체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실질적인 네트워크 참여자(채굴자 또는 검증자, 블록프로듀서라고도 함)인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이더리움 재단과 긴밀하게 소통했던 '폴카닷' 프로젝트나 국내 프로젝트로 알려진 '하이콘' 등 경쟁자가 있기도 하죠.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모든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는 포부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hura@

시장 이모저모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은 '계산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이더리움에선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계산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활용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비탈릭 부테린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기능적으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더리움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부테린은 "비트코인은 계산기와 같아서 한 가지 일만 잘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과 같아서 계산기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처럼 다재다능한,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을 블록체인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덧붙였다.

서클 "시드인베스트 인수건, FINRA 승인"

미국 블록체인 기업 서클(Circle)이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시드인베스트(SeedInvest) 인수건이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의 승인을 받아 최종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서클은 시드인베스트 인수를 통해 가상화폐공개(ICO)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이어줄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자사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

서클은 이번 인수에 대해 "개방형 레일과 인프라를 사용해 기업과 개인들이 자본을 확보하고, 투자자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토큰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인베이스 프로, 리플 거래 지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리플(XRP)을 상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XRP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XRP 거래가 뉴욕을 제외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코인베이스 프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향후 다른 사법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를 추가 지원해왔다. 작년 코인베이스 프로에는 8월 이더리움클래식, 11월 베이직어텐션토큰과 지캐시가 상장됐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민들레)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천연가스로,
깨끗하 Go
안전하 Go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로
내일은 더 맑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맑음
한국가스공사

“韓·日 잘못된 과거 제대로 처리하고 극복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2000년 여성법정 이야기' 주제 대담

적대 관계 계속된다면 양국 모두 불행해질 것

민간·지방정부 교류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 가야

“기록과 기억의 힘은 대단하다.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기에 채증하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2000년 여성법정 이야기'를 주제로 펼친 대담에서 최근 개관한 위안부 기록물 전시회 '기록 기억: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관람 소회를 밝혔다.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2000년 여성법정'은 아시아 9개국이 참여한 국제시 민법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시에 행해지는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남북 검시단과 피해자가 한 팀이 돼 위안부 문제를 공동 기소한 법정 으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남측 대표검사로 참여한 박 시장은 이날 위안부 문제에 뛰어난 계기, 재판 준비 과정, 남북공동기소 배경 등을 털어놨

다. 박 시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고문번호사로 활동하다가 2000년 역사법정 마지막 단계에서 긴급 호출됐다. 연구는 많이 돼 있었지만 재판은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일인데 기술이 부족했다”며 “서두에 북한 연설을 배치하고 우리 증거로 뒷받침하는 PT를 만들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회상했다.

박 시장은 “서양에선 독일 나치의 2차세계대전 책임이 모든 역사서에 잘 기록됐으나 아시아 지역 전쟁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월이 흐를수록 연구하고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짜야 요리 선생처럼 일본에서도 정신대 문제, 2000년 법정에 관심 갖고 깊이 반성하며 운동을 도운 분들이 상당하다”며 “너무 일본을 적대적으로 보선 안 된다. 일본 풀뿌리 시민운동은 (한국에) 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과거 청산, 동북아 평화 등 시



박원순(맨 오른쪽) 서울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 등 '2000년 여성법정 이야기'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대 과제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잘못된 과거는 청산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문사 사건 등 인권 분야에서도 백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2차대전 이전에도 1차대전, 백년전쟁 등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였다. 하지만 현재 초국가적인 EU가 탄생하는 등 평화 유럽이 건설됐다”며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을 제대로 처리하고 극복해 아시아도 유럽과 같은 평화 체

제를 만들어야 한다. 적대 관계가 계속된다면 양국이 불행하다”며 “국가 관계가 아니라 민간, 지방정부 관계에서 끊임없는 우정을 축적해 좀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박영심 씨가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 만삭이었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3장의 사진 실물을 비롯해 그 간 발굴한 사료, 사진, 영상, 증언 등을 이야기로 엮은 전시회 '기록 기억'을 진행 중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장일태 나누리의료재단 이사장 고려대 발전기금 21억 쾌척

고려대학교는 장일태(사진 왼쪽) 나누리의료재단 이사장(고대 의대 41회 졸업)으로부터 발전기금 21억 원(의학발전기금 20억 원, 디자인조형학부 1억 원)에 대한 기부약정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4일 고려대학교 본관 1층 인촌채움에서 열린 기부약정식에는 기부자인 장일태 이사장을 비롯한 나누리의료재단 임직원과 정진택 총장, 이기형 의무부총장, 이홍식 의과대학장 등 고려대학교 주요 보직자들을 포함해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일태 이사장은 나누리의료재단을 운영하며 국내 소외계층 무료 수술사업인 '사랑나누리' 사업을 비롯해 매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의료 낙후지역에서 무료 진료 및 수술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日王 퇴위 의식 12일 시작 생전 퇴위는 200년 만

아키히토(明仁·사진) 현 일왕의 퇴위 의식이 12일부터 시작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왕의 생전 퇴위는 메이지(明治) 이후 200년 만이다.



마지막 퇴위 의식은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 일왕 즉위 이래 사용해 온 헤이세이(平成, 올해는 헤이세이 29년) 연호는 31년 만에 사라지며, 아키히토 일왕의 호칭은 상왕(上皇), 왕비는 상왕비가 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2일 첫 퇴위 의식은 일본 아마테라스(天照大神) 등 선왕들을 모셔놓은 고쿄(皇居) 내 규추산덴(宮中三殿)에서 열린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2016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몸이 약해져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며 생전 퇴위 의사를 밝혔다.

아키히토 일왕은 아버지 쇼와(히로히토·裕仁) 일왕이 서거한 후 1989년 1월 즉위했다. 2019년 5월 1일에는 아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즉위식이 열릴 예정이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위스키 대부’ 김일주, 임페리얼 유통사 회장 취임 “침체된 위스키 시장, 새바람 일으킬 것”

드링크 인터내셔널은 김일주(사진) 전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5일 밝혔다.

드링크 인터내셔널은 1994년 출시된 한국 최초의 프리미엄 위스키 ‘임페리얼’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김 회장이 직접 설립한 주류 회사다.

김 회장은 1960년생으로 두산씨그램, 진로발렌타인스, 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을 거친 위스키 업계의 대부로 통한다.

김 회장은 “이번 임페리얼 판매를 계기로 침체된 국내 위스키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는 동시에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위스키 임페리얼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마케팅과 강력한 영업 활동을 통해 향후 2년 내에 위스키 브랜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임페리얼 판매를 계기로 침체된 국내 위스키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는 동시에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위스키 임페리얼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마케팅과 강력한 영업 활동을 통해 향후 2년 내에 위스키 브랜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김 회장은 “이번 임페리얼 판매를 계기로 침체된 국내 위스키 시장에 새바람 일으키는 동시에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위스키 임페리얼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마케팅과 강력한 영업 활동을 통해 향후 2년 내에 위스키 브랜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게시판

‘큰손’ 장영자 소유 구리 땅 경매에

지난해 말 사기 사건으로 4번째 구속된 장영자 씨 땅이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도 구리시 아전동 소재 124-3, 128-2, 128-3, 128-4, 129-1 등 5개 필지(총면적 2709㎡)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 씨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채권자에 의해 2016년 7월 경매가 재개됐다. 근저당, 압류권자 등 당사자만 24명에 달하다 보니 경매가 재개되고 3년여가 지나서야 첫 입찰이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美 15억 달러 ‘메가잭팟’ 당첨자 나타나

지난해 10월 15억 달러(1조6882억 원)의 당첨금이 나온 미국 메가 밀리언스 잭팟 당첨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미국 CBS방송은 4일(현지시간) “미 복권위원회 간부들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주민이 잭팟 당첨금을 청구했으며 익명으로 남아있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복권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잭팟 당첨금은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며, 익명의 당첨자는 일시불로 약 8억7800만 달러를 수령하는 개시 옵션을 선택했다.

박성현, 4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 1위 탈환

골프 여제 박성현(26·사진)이 태국의 쭈타누간을 제치고 약 4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성현은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6.74점을 획득, 6.54점의 에리아 쭈타누간을 제치고 4일부로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박성현이 여자골프 세계 1위를 자리를

되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여자골프 세계 랭킹은 약 7개월 동안 박성현과 쭈타누간 두 사람의 랭킹이 번갈아가며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 메이저 우승을 포함한 5승과 세계 랭킹 1위를 목표로 삼았던 박성현은 이미 1승을 따낸 데 이어, 세계 1위에도 오르면서 성공적인 2019시즌을 예고했다.



박성현은 6일부터 사흘간 필리핀에서 열리는 더 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션에서 출전한다. 김정용 기자 cogito@

인사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장 이영희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정장 김종철

◆한국전력기술 ◇부서장 전보 △미래전략연구소장 김덕호 △마케팅전략실장 오명갑 △원자력연구실장 김재희 △신사업연구실장 라중희 △인재개발교육원장 장진영 △계약관리실장 이강진 △안전보안실장 송원섭 △혁신성장실장 오인승 △원전안전센터장 정환용 △국내건설사업그룹장 심중권 △해외사업그룹장 이동승 △

사후관리사업그룹장 김영호 △PSA&PSR사업그룹장 석호 △미래성장사업그룹장 김선민 △원자력기술실장 유정무 △기계배관기술실장 김용백 △전기계측기술실장 이덕수 △토건환경기술실장 우중현 △사업관리기술실장 김용수 △건설사업그룹장 김동규 △기계배관환경기술실장 육동준 △전기계측기술실장 최정범 △토목건축기술실장 이정훈 △원자로안전점검실장 진 승령 △원자로사업개발처장 전성한 △신기술사업그룹장 이병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영운

◆KB증권 ◇신규 선임 △M-able Land Tribe장(상무) 하우성

◆메디텍 ◇임원 승진 △상무 박승범(생산본부장) △이사대우 이순만(공무팀)

◆건국대병원 △행정처장 구당희

◆파이낸셜뉴스 ◇승진 △부사장 남상인 △전무이사 전선익 △경영지원실장(국장) 이두영

◆전자신문 △전자신문인터넷미디어전략연구소 소장 김인기

◆스포츠클럽 ◇전보 △연예온라인뉴스부장 김수길 △생활경제부장 배진환

부음

▲장종수 씨 별세, 김정숙 씨 배우자상, 장진혁(온푸드 대표)·혜원(LG전자 홍보팀 책임) 씨 부친상, 김건희(디자인캐츠실장) 씨 장인상 = 4일,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6일 오후 1시, 02-923-4442

▲한상욱 씨 별세, 한준희(GC녹십자셀경영관리실 상무)·제희(개인사업)·진희(고희선그룹 전무) 씨 부친상 = 4일, 아주대병원장례식장 2층 25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30분, 수원시 연화장승화원,

031-219-6654

▲곽영애 씨 별세, 이승우(KT 홍보실 부장)·송재(기독교역사박물관 학예사)·명선 씨 모친상, 오수경(안산시립국악단 총무)·곽은미 씨 시모상, 강승민(LG전자 책임연구원) 씨 장모상 = 4일, 중앙대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2-860-3500

▲조병필(전 코리아타임스 사장) 씨 별세, 조한진(IBM 차장)·혜령 씨 부친상, 임영택(KB손해보험 차장) 씨 장인상, 노은진(삼성의료원 어린이집 교사) 씨 시부상 = 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31-787-1505

문제도의 세상 이야기



서울대 객원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새로운 기술이 석기 시대를 끝낸 것처럼 에너지 혁명도 기술 발달의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좌우될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와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신기술에 대한 세제·요금 등 제도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1월 하순이면 스위스의 유명한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열린다. 고속도로나 비행기가 닿지 않는 이 외딴 곳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 그해 경제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재계 지도자들도 참석하여 이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종종 대통령이 참석하여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굴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IR활동을 하기도 한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대세여도 여전히 지도자들은 서로 만남을 통해 미래를 이야기한다.

올해 주제는 2016년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항상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기로 유명한 포럼의 주관자인 쉬밥 회장이 3년 만에 같은 주제를 내놓아서 흥미로웠다. 연속해서 다루면 식상해져 장이 서기 어려울 터인데 말이다. 그럼에도 그가 짧은 시간에 이 주제를 다시 제기한 이유를 내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다.

처음 화두를 제기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은 그 정의가 다소 애매했다. 3차 혁명인 정보혁명을 뛰어넘는다는 데 그 연장선상에 있어 보이고, 그 범위에 I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과정의 변화 정도로 과거와 단절의 의미가 확실치 않아 혁신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 그가 3년 동안 인공지능, 자율

주행차 등 여러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4차 혁명의 도래에 대한 확신이 섰나 보다. 현재의 첨단기술들이 융합되어 가져올 미래상이 생산현장만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뀔 정도로 획기적이라고 느낀 것이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유경제가 일상화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변해야 하고, 특히 사회 전반의 제도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세상을 변화시킬 10대 기술 중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목했던 에너지 저장에 포함된 것이 필자의 관심을 확 끌었다.

2014년 여름 APEC에너지장관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원유를 수입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관들은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고, 얼마나 지속될지가 제일 큰 관심이었지만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도 단골 메뉴였다. 이때 우리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비롯한 전지(배터리) 기술의 발달과 미래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지산업의 해외 시장 길을 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당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듬해 미국 주도로 개최되었던 클린에너지장관

회의에서도 미래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로 전지 기술의 발달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IT에 비해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CNN방송에서 특집 기사로 포르투갈 정부가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함께 활용하여 전력 시스템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 기업들이 10년 이상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전지 분야에서 성공의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할 수 있는 청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해 우리나라가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한 2차전지 판매액이 반도체에 이은 2위 품목이고, 신규 수주 금액도 110조 원에 이르러 미래 산업의 주력으로 발돋움하였다.

급세기 중반경에는 화석연료를 넘어 재생에너지가 보편화된 에너지 전환을 예상한다.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보편화된 사회로 전환할 것이라 말한다. 과거 전기는 저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연료만 채택되었으며, 수요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항상 여유 설비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주종 전기 생산원으로 채택되지 못했

다. 그러나 이제는 IT와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난관을 해결할 길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난 기간은 정보혁명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가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공급의 안정성이란 제약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전 사회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새로운 기술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몇 해 전 에너지혁명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토니 세바의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사라져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새로운 기술이 석기 시대를 끝낸 것처럼 앞으로 에너지 혁명도 기술 발달의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좌우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시대에는 부존자원이 극히 미약한 후발 주자였다. 그러나 에너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와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뚫고 성공의 길로 접어들도록 세제, 요금 등 제도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책발언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규제는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질서유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적으로 생성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가의 중요한 기반이다. 법령으로 확정된 규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당 기간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나 소비자의 필요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 행복 실현에 기여한다. 그러나 기술발전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적합한 규제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시험·검증하기

규제 샌드박스는 국가경쟁력 증진 동력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 확인', 혁신적 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즉,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생명공학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규제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실증이나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혁신성장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

리나라의 규제체계가 기술 혁명과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한 신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 국민의 교육 수준 등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지만, 해당 국가의 법령과 제도의 수준 또한 중요한 요소다. 경쟁력이 강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그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다. 올해 2

월 11일 제1차, 2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결정된 9건의 규제특례는 단순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제한되지 않고, 기존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역할도 해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첨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창의성은 충분히 발현되고, 개인의 자유는 신장되며,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도 달성돼 대한민국이 경쟁력 강한 국가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알지 못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이를 사업화하는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이 상당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축과 집행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업에 알려져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권장해 주길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펄 벅 명언
"힘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용기는 마음속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그녀는 생후 3개월 만에 중국으로 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대지'를 통해 중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다. 미국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녀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92-1973.

☆ 고사성어 / 상선약수(上善若水)
'옳음이 되는 선(善)은 물과 같다'는 노자(老子)의 무위(無爲) 사상을 물의 성질에 비유한 말. 출전은 도덕경(道德經).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 시사상식 / 프레이밍 이펙트
사람은 제마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인식의 왜곡 현상을 가리킨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해서 살아날 확률이 80%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수술로 인해 죽을 확률이 20%라고 말할 수도 있다.

☆ 고운 우리말 / 솔적심
국이나 찌개와 같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솔'은 '밥 한 술'할 때의 '술'이며, '술가락'을 뜻한다. '술가락을 적신다'는 뜻이니 국물 있는 음식의 별칭으로 쓰인다.

☆ 유머 / 팔찌값
아름다운 여인이 보석가게에 들어와 몸을 구부려 팔찌를 보다 방귀가 새어나왔다. 잘생긴 점원이 다가오니 얼버무리며 값을 묻자 그의 대답. "손님, 보는 것만으로도 방귀가 나오는데, 값을 알면 아마 똥을 찌지도 몰라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보수도 적고, 외국 대학 출신에 대한 텃세도 심하고, 정치력까지 있어야 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싫어요."

서울대 공대 졸업 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김모 씨는 모국에서 일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에서 취직 자리도 알아봤지만 보수, 대우 등 모든 게 미국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유능한 해외 과학기술 인력 1000명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분야의 인재 부족을 대비해서다. 실제 작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보고서 통해 AI,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분야에서 2022년까지 국내 개발자 3만1833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할

기자수첩

임기훈 IT중소기업부/shagger1207@

과학인재 발 못붙이는 한국

만큼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로 오는 해외 연구 인력에게는 지금보다 8000만 원 많은 최대 연 2억 원까지 보수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정주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유인책이라고 홍보했다. 정말 파격적일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다 버리고 올 만큼 큰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졸업한 학사 학력의 연구원도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업체에서 3억 원이 넘는 초년 연봉을 받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너무 인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66.8%가 미국 잔류를 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산업부 (02)799-2648	편집부 (02)799-2621 사회경제부 (02)799-2612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팀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6741 중기IT부 (02)799-2646	사진팀 (02)799-2697 금융부 (02)799-2665 자본시장부 (02)799-2647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9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박성택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많이 닳았다. 최 기자가 진짜 동생이라고 해도 믿겠다."

박성택 산하 대표가 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선임되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다.

그런 박 대표가 지난달 말 4년이라는 임기를 채우고 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4년간 지켜본 박 대표는 첫인상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담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애연가에, 생김 것과 달리 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락부락한 생김새와는 달리 한없이 착하고, 생각이 깊은 인물이 바로 박 대표다.

그는 1957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이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LG금속(現LS니코동제련)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회사인 맥켄지와 LG그룹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TF에 참가하게 됐다. TF에서 활동하면서 세계 경제의 격변기 속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직접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1990년 LG그룹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들과 힘을 합쳐 산하물산을 설립했다. 그 뒤로 아스콘산업에 전념하면서 남양주시 와부읍에 공장 및 사업장을 두고 레미콘 및 아스콘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산하의 대표를 맡고 있다.

산하는 2017년 기준 매출액 828억 원, 영업이익 139억 원의 알짜 중소기업이다.

박성택이란 인물은 허례허식을 싫어한

데스크칼럼

최영희 중기부장



다. 실제 그는 중기중앙회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불필요한 의전들을 거부했다. 비서실 직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해외 출장 때 항공기 좌석 등급도 퍼스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낮추고, 호텔도 스위트룸 대신 일반룸에 묵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회사 휴앤쇼핑이 내준 법인카드도 반납했다. 출퇴근 의전도 없었다. 비상근직인 회장이 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중기중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기중앙회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12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 주관으로 공공부문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 반부패 수범 사례 개발·확산 등 총 39개 과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렴 거버넌스 운영'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등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회원사

에 대한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원조합 감사 실시 등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분야까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 '부패 방지 시책기관 1등급'은 중기중앙회가 유일하다.

지난 4년간 박 대표는 어느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 그는 전면에 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했고 이를 통과시켰다. 근로시간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도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연대보증제·삭속어음 단계적 폐지,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등 다양한 일들을 해냈다. 물론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업계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뱉어내면서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박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한 용기도 겸비한 인물이다. 그는 재임 시절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장 임후보자에 대한 정회원 10% 추천 조항을 폐지했다. 회장직을 연임하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바꾼 것.

중기중앙회장직에서 아름답게 물러난 박 대표에게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중소기업 CEO, 자수성가한 창업가라는 이미지보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할 줄 아는 '인간 박성택'으로 언제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기대해 본다. che@

시설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공허한 이유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12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GNI는 3만1349달러(약 3449만4000원)로 집계됐다. 2017년 2만9745달러(약 3363만6000원)보다 5.4%(원화 기준 2.5%)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5000만 명이 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했던 한국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단한 성취다. '30-50클럽'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여섯 나라뿐이었다.

그럼에도 공허하다.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소득은 급격히 줄고, 소득 상·하위 계층의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소득은 월평균 123만8200원으로 전년 대비 17.7%나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는 월 932만4200원으로 10.4%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를 기록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나쁜 소득분배지

표다. 무엇보다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인 경제성장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한은 집계 결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7%였다. 2017년 3.1%에서 푹 떨어진 것으로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핵심지표인 투자와 수출 등이 내리막이다. 설비투자가 1.6% 줄어 2009년(-7.7%) 이후 가장 저조했고, 건설투자도 -4.0%로 뒷걸음질했다. 수출은 4.2% 신장했지만 작년 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로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도 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수출마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2.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동력인 투자와 수출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오히려 경제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면 다시 2만 달러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 경제제질을 바꾸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과 실행이 절실하다. 기업투자를 늘릴 규제 개혁과 산업구조 재편, 고질적으로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차장

수출강국 코리아, 영광은 가고...

수로 작용할 수 있어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은 않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기 둔화, 신보호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 속에 반도체 단가 및 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단일품목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는 지난달 24.8%나 빠졌고,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도 각각 14.0%, 14.3% 감소했다. 석유 관련 수출품은 유가 하락이 멈춰 있음에도 미국이 공급을 늘리면서 수출 단가가 하락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다. 이달 4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가 수립해 추진하는 수출 주요 과제 액션플랜만 59개다. 계약서만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등 수출기업의 돈을 풀어주기 위해 금융 지원을 235조 원으로 확대한다.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수출 클러스터도 추가로 구축한다. riby@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그 역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12월부터 한국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산업 경기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수출의 감소 폭이 커진 것은 13대 주력 품목 가운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을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해서다. 그럼에도 이번 수출 활력 제고 대책에서 반도체 등 기존 주력 품목의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정부가 수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차체에 더 고삐를 당겨 '영광'까지 아니더라도 최소 '불안'은 해소해야 한다. riby@



경칩(驚蟄)

오늘은 경칩이다. 경칩은 驚蟄이라고 쓰며 '놀렐 경', '숨을 칩'이라고 훈독한다. '숨을 칩(蟄)'은 '벌레 웅(虫)'와 '잡을 집(執)'이 합쳐진 글자로서 '뱀'의 뜻을 나타내고 '毓'은 뜻과 함께 발음을 나타낸다(집→칩). '뱀'은 뱀이 땅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이고 '毓'은 본래 '죄수에게 수갑을 채워 붙잡아 두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따라서 虫과 毓이 합쳐진 '毓'은 뱀이나 개구리와 같은 동물들이 잡혀 있듯이 꼼작하지 않고 겨울잠을 자는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뱀'은 흔히 '벌레 총'이라고 훈독하는 글자이지만 '벌레 총'의 본래 글자는 '蠹'이고, '뱀'은 '蠹'의 속자임과 동시에 '벌레 웅'라는 별도의 훈을 가진 글자이다. 驚은 '敬(공경 경)'과 '馬(말 마)'가 합쳐진 글자로서 敬에서 발음을 취하고 馬에서 뜻을 취하여 말이 놀라서 앞다리를 추켜든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그러므로 驚蟄은 겨울 내내 마치 누구에게 잡혀 묶인 듯이 꼼작 않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나 뱀 등이 따뜻한 봄을 맞아 놀라 깨어나는 날이다. 24절기 중의 하나로서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 다음에 오며 대개 양력 3월 5일을 전후한 날이다.

곰이나 다람쥐 같은 동물들도 겨울잠을 잔다. 이들은 개구리나 뱀처럼 꼼작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수면(假睡眠) 상태로 동굴 속에 들어가 겨울을 난다. 동물들의 이러한 겨울잠에 빗대어 바깥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사는 것을 '칩거(驚蟄:살 거)'라고 한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을 맞아 자의로운 타의로운 세상에 나타나기를 꺼려 칩거하던 사람들이 활기차게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세상을 빠르게 이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려면 더 더욱 칩거를 끝내고 세상으로 나와 주기를 바라고, 만약 죄를 짓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뉘우치고 자수하여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www.etoday.co.kr

일회용품으로 아픈 지구를 살리는 쉬운 방법?

igreenwegreen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쓰자

대한민국 아그위그 챌린지

I GREEN WE GREEN

좋아요 51,635,256개
igreenwegreen

#아그위그챌린지 #텀블러트리 #지구살리기 #일회용품노노 #맹그로브나무기부 #쉽다쉽다 #함께해요

실제 맹그로브 숲
열대우림보다 5배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SNS에 #텀블러트리를 인증하고 함께할 친구를 태그해주세요
SK이노베이션이 복원 중인 베트남 맹그로브 숲에 나무 1그루가 더해집니다



아그위그챌린지는 **SK 이노베이션**이 함께합니다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안전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아그위그챌린지 자세히 보기
<https://skinnnews.com>